Weekly 공감

더 큰 대한민국

No.61
2010.05.19
gonggam.korea.kr



서민 살림살이 더 촘촘히

중점기획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2018년에 뜰 10대 유망직업은?

호타준족 추신수 인터뷰


미소금융이 당신의
백만불짜리 미소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스마일 어게인
아름다운 소액대출 '미소금융'
새롭게 시작하는
親서민 금융 프로젝트 미소금융
신용등급이 낮아도 자활의지가 있으면 희망을 빌려 드리는 미소금융을 기대하세요
▶영세사업자 운영자금 ▶전통시장 상인대출 ▶일반 창업자금
▶공동대출 ▶사회적 기업 지원자금
▷▷ 미소금융이란? 서민층의 재활을 돕는 무담보 소액신용대출(마이크로크레딧)의 일환으로써 향후 10년간 2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전국 200~300개의 지역법인을 설립하여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새로운 서민금융 프로젝트입니다
종 합 안 내 센 터
1600-5500
서민이 활짝 웃는 그날까지 -
미소금융중앙재단

어려운 이웃과 함께 고민하는 인생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김승유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

어려운 이웃들의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미소금융 지역네트워크가 출범 6개월째를 맞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미소금융 지역지점이 문을 열기 시작한 이래 전국적으로 38개 지점이 개설(올해 말까지 70~1백 개로 확대 계획)되어 미소금융 대출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소금융의 원조가 되는 우리나라의 마이크로 크레디트(무담보 소액대출) 사업은 10여 년 전부터 30여 개 민간기관이 연간 1백50억원 정도 규모로 운영해왔다. 미소금융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연간 2천억원 이상의 규모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마이크로 크레디트와 차별화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미소금융 지역지점 개설 이후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관심을 갖고 방문했으며, 지역지점을 통해 창업자금을 대출받아 자활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는 분들의 사례를 접할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낀다. 그러나 미소금융 사업은 아직 정착 단계에 있다. 그동안 운영을 통해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나타나기도 했다. 먼저, 많은 분이 대출 대상이 아니어서 실망을 안은 채 돌아선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이에 대해 미소금융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 다른 서민금융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는 '서민금융 통합 서비스'를 시작했다.
대출 심사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실제 대출이 어렵다는 우려도 있었다. 미소금융도 사업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 자격요건이나 자활의지 등 일정한 대출심사 기준을 정해놓고 운영하고 있다. 다만 운영 또는 시설자금을 대출받을 때 2년간 사업 경력이 있어야 한다거나 창업자금의 50퍼센트를 본인이 준비해야 하는 등의 기준은 대출 활성화를 위해 완화 여부를 검토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다. 우선, 미소금융 지역지점을 지원하기 위한 미소희망봉사단(가칭)을 구성해 운영토록 할 것이다. 3, 4명의 자원봉사자 위주로 운영되는 미소금융 지역지점의 경우 전문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중앙재단 차원에서 경영컨설팅, 세무, 회계, 법률 등 관련 분야의 뜻있는 전문가들로 1천여 명 규모의 자원봉사단을 구성해 지역지점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층의 자활을 성공으로 이끌 전문인력 양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미소금융은 단순히 대출만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에게 인생의 멘터나 동반자와 같이 고민을 함께 나누고 희망을 북돋워줌으로써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미소금융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이 자활을 통해 삶의 희망을 되찾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자활의 선순환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서민들이 처한 어려움 해결에는 미소금융 사업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웃에 대한 관심과 나눔을 실천하고, 각자의 재능과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문화가 더욱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G

Weekly
2010.05.19
No.61(통권 162호)

Contents



표지 이야기

부처님 오신 날(5월 21일)을 앞두고 형형색색의 연등들이 서울 청계천을 수놓았다. 부처님은 태자의 신분으로 태어났으나 서민들의 곤궁한 삶을 목도하고 출가, 고통스런 수행자의 길을 걸은 끝에 깨달음을 얻었다. 우리 서민들에게 부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일러스트 · 이우정





Weekly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0.05.19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주)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기 획 특 집

서민이 따뜻한 대한민국 만들기

저신용자, 영세 자영업자가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금융 지원이 있습니다.
집 없는 서민에게 내 집이 되어주는
보금자리주택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마음 놓고 일하러 갈 수 있는
보육제도가 있습니다.
공부하려는 학생의 꿈을 키워주는
든든학자금도 있습니다.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의료 지원과 복지의 그물,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한 긴급구호와 일자리…
이 모든 것이 서민이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한
따뜻한 배려입니다.

공감 라운지

Weekly 공감 편집실(gonggam@korea.kr)과 홈페이지(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 코리아(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청와대(www.president.go.kr) 등에 올라온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Weekly 공감〉 60호(5월 12일자) 기획특집 ‘위기 딛고 재도약하는 한국경제’와 관련해 많은 독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다시 일어선 한국경제, 앞으로도 파이팅!”

“‘솔솔~ 고용시장 봄바람’ 기사를 보면서 소금 장사와 우산 장사를 하는 두 아들을 둔 어머니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비가 오면 소금 파는 아들을 걱정하고 비가 오지 않으면 우산 장사를 하는 아들을 걱정하는 그런 어머니의 심정 말입니다. 두 아이를 두고 있는데 하나는 취업을 했고, 다른 하나는 여전히 백수랍니다. 우리의 고용시장에도 명명백백한 고용의 봄이 도래해 많은 젊은이들이 너끈히 취업하길 소망합니다.”_홍경석

“국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우리의 과제와 해법들이 잘 정리돼 있었습니다. 지난날 범국민적 고통분담과 체질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 우리 경제에 큰 약이 됐고, 다른 나라에 비해 일찍 위기를 떨쳐내게 한 원동력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모두가 합심해 경제 살리기에 전력투구했으면 좋겠습니다.”_ 전경욱

“서민들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정책 많이 나왔으면”

“‘스스로 돕는 서민을 돕는다’를 보면서 지금은 정부와 지자체들이 무엇보다 서민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발굴에 힘써 어려운 가계에 희망을 불어넣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다 보니 서민층을 제대로 보살피거나 챙겨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서민들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정책과 대안 마련에 주력해 좀 더 많은 공감을 이끌어내기를 기대합니다.”_최남이

60호 사람들 ‘이주노동자 치료하는 건강센터, 희망세상’ 기사를 읽고 독자가 보내온 의견입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을 나누는 봉사의 실천은 물론이고 이역만리 이곳까지 찾아와 외롭고 서글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육체노동을 많이 하는 까닭에 물리치료를 해줄 자원봉사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희망세상 유순화 실장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이어졌으면 합니다.”_라순자

60호 이슈 ‘淸白吏가 국가경쟁력의 시발점’ 기사를 읽고 독자가 올린 의견입니다.

“명실상부(名實相符)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이름과 실상이 서로 꼭 맞음을 의미하는데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는 이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어느새 세계 10위권에 진입했지만 국가청렴도지수는 고작 39위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이 같은 주장을 방증합니다. 다행히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韓세상’을 정착시키기 위해 시동을 걸었고 아울러 국민의 삶 속에 청렴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범국민운동을 병행한다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경제규모에 걸맞은 ‘클린 코리아’가 되길 염원합니다.”_casj007





알립니다

상하이엑스포 무료 관람 도전하세요

2010 상하이엑스포의 막이 올랐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여수조직위)는 청년들에게 미리 엑스포 체험의 기회를 주기 위해 '상해박람회 청년 체험단'을 모집한다.

5월 31일까지 모집하는 체험단에 지원하고 싶다면 음식, 공연, 건축, 사진, 인물 중 한 가지 주제에 맞춘 상하이엑스포 여행 계획을 세워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고, 이후 여수조직위 이벤트 홈페이지에 블로그 주소를 올리면 된다.



여수조직위는 창의성, 홍보 기여도 등을 평가해 선발한 총 12명에게 상하이엑스포 여행 관련 항공, 숙박, 입장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체험단은 7월 초 3박4일간 상하이 현지를 다녀와 체험기 3편 이상을 작성해야 한다.

여수조직위 손혁기 담당자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상하이엑스포를 블로거들이 분야별로 체험해 누리꾼들에게 알리고, 여수세계박람회 준비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Tel **02-740-4854 expo2012.or.kr**

청춘을 응원하는 신개념 강연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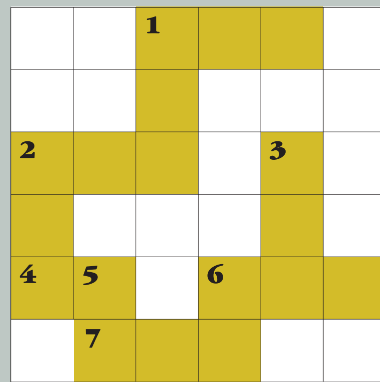
청년들의 취업 의지를 높이기 위해 공연과 강연이 어우러진 퓨전 콘서트가 열린다. 노동부는 5월 21일 오후 1시 서울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신개념 강연 콘서트 '으라차차차 Cheer up! 청춘-청춘은 그 자체로 하나의 빛이다'를 개최한다. 이 콘서트는 딱딱하고 무거운 분위기의 강연 형식에서 벗어나 강연의 유익함과 토크쇼의 진솔함, 콘서트의 재미가 결합된 독특한 형식의 강연쇼로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디자이너 김영세, 구글코리아 김태원 과장, 가수 션, 개그우먼 박경림 등이 연사로 출연한다. 청년고용 홍보대사로는 비트컴퓨터 조현정 대표, 한경희생활과학 한경희 대표, 탤런트 이인혜 등이 위촉된다.

공연 티켓 가격은 1만원이며, 인터파크(1588-1555, interpark.com)를 통해 판매한다. 행사의 수익금은 '착한 당신과 함께 희망을 만드는 사회적기업' 후원에 쓰인다.

노동부 청년고용대책과 Tel **02-6902-8255**

공감♥퍼즐



빈칸의 답을 연락처와 함께 5월 26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가 로

1. 4년마다 개최, 대한민국은 7회 연속 본선 진출, 남아프리카공화국 2010년 6월 11일에서 7월 12일까지, 대한민국 16강 진출 기원.
2.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호타준족의 한국 선수. 연일 홈런포와 안타 작렬.
4. 경제적으로 중류 이하의 넉넉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 "OO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6. 발칸반도 남단에 있는 나라. 최근에 재정위기를 맞았죠. 남아공에서 우리와 맞붙을 상대국이기도 하죠.
7. 먼 곳으로 운동경기나 등반, 탐험, 조사, 답사 등을 하러 가는 단체.

세 로

1. 녹나뭇과의 상록 교목. 잎은 향기가 좋아 향료로 쓰고 예전에는 올림픽에서 경기 우승자에게 '월계관'으로 씌워주기도 했죠.
2. 추천의 내용을 담은 글. "학교장 OOO를 받다."
3. 요즘 인기가 좋은 우리나라 고유의 술. 맑은술을 떠내지 아니하고 그대로 걸러 짠 술이라서 이런 이름이 붙었죠.
5. 주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일.
6. 듣는 이가 친구나 아랫사람인 경우, 그 사람을 높여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 연인들끼리 상대편을 친근하게 이르는 말.

〈Weekly 공감〉 59호(5월 5일자) '공감퍼즐' 정답
가로 2 재취업 4 스무고개 6 농가 7 축산 8 물음표
세로 1 엑스포 2 재개 3 업둥이 5 고부가 6 농산물

〈Weekly 공감〉 59호 '공감퍼즐' 당첨자
김태인 · 서울 구로구 고척동
배현주 · 경남 마산시 내서읍 호계리
신문수 · 강원 원주시 학성동
엄 지 ·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이미형 · 충북 단양군 영춘면 오사리

이 코너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만드는 지면입니다. 국민들이 호소한 고충이 실사(實査)를 거쳐 해결되는 과정을 정리해 보여드립니다.
국민 고충 접수창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고충민원 및 행정심판 국번 없이 1588-1517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고충 해결사



"명예 회복된 것만도 행복합니다"

자신이 몸담고 있던 A사(社)가 국가 예산을 낭비했다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후 파면 조치된 내부고발자 김청렴(가명) 씨. 그의 파면 이유는 세 가지였다. △조직 내부의 기밀을 누설했고 △허위사실을 공개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대여한 측정 장비를 훔쳤다는 것.

부패행위 신고자에게는 마지막 보루나 다름없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청렴 씨를 보호하기 위해 먼저 사건의 내막부터 파헤쳤다. A사가 기밀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대부분 기술적인 문제였는데, 내부고발자 사건에서 흔히 볼 수 있듯 평소 느슨하던 내부 규정을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명예훼손 여부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청렴 씨가 신고한 A사의 '부패행위'가 허위인지 진실인지 여부, 공연한 사실을 적시했다면 그것이 공익을 위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지,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자료 조사에 들어갔다. 다행히 김청렴 씨에게 유리한 판례를 찾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과 자체조사서 등 김청렴 씨에게 불리한 서류들이 접수됐지만,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들은 그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실무 관계자 모두 그의 파면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했다. 결국 이들은 분과위원회와 전원회의를 거쳐 파면처분 취소권고 결정을 받아냈다.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김청렴 씨는 "내 명예가 회복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했다. 안타깝게도 그의 복직은 A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불복해 실현되지 못했지만, 이 사건은 부패방지법을 강화하고 내부고발자를 향한 그릇된 사회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

정리 · 김지영 기자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공감 마당

1.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
2. 지난주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박누리 서울 중구 신당동

1. '경복궁, 수정전, 창덕궁, 영화당 등 전각 5곳 개방' 기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고궁에 갔을 때마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며 들어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시민들에게 개방된다니 반가웠어요. 궁궐 전각을 찾아 걸으면 기품과 위엄이 절로 흐를 것 같습니다.
2. 이번 기획특집 기사들을 읽으면서 우리 경제가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빨리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5천 년 역사를 돌이켜봐도 우리나라는 위기에 강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3.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사회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만이 아니라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등 다양한 가정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을 통해 진정한 가정의 의미, 가족의 의미를 보여주고, 이들 가정을 돕는 정부 정책을 소개했으면 합니다.

양정숙 서울 구로구 고척동

1. '소설가 조경란의 엄마에게 쓰는 편지' 기사가 감동적이었습니다. 매년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도 한 번도 진심을 다해 부모님께 편지를 써본 적이 없어 부끄러우면서도 부러웠습니다. 조경란 씨가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끊임없는 지지와 격려 덕분입니다. 이 편지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의 소중함을 깨닫고 가족들과 화목한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2.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파가 모질게 계속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획특집 '위기 딛고 재도약하는 한국경제' 기사들을 읽으면서 우리 경제에 훈풍이 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4월 외환보유액이 최대치를 기록하고 취업자가 늘어나는 등 경제 회복세와 긍정적인 고용 동향은 그동안 묵묵히 위기 대처에 힘써준 정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 여세를 몰아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돕는 경제 성과가 지속되길 희망합니다.
3. 6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되는 월드컵 분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 일정과 같은 월드컵 정보와 과거 월드컵 이야기 등 월드컵 관련 기사들이 게재되면 좋겠습니다.

독 자 의 견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은 〈Weekly 공감〉 제작에 소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아래의 설문에 의견을 적어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5월 19일(수)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의견이 게재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에 실린 기사 중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2. 이번 주 기획특집으로 다룬 '서민들에게 희망을'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KFDA 식품의약품안전청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건강기능식품 제품정보검색
http://hfoodi.kfda.go.kr

Health Functional Food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살펴보면 볼수록 가족건강이 쑥쑥~



식약청에서 **인정된 제품**만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와 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더 확인하는 습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좋은 습관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효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입니다.

제품선택 시 확인사항

- 제품앞면의「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와 마크 확인
- 기능성내용, 섭취 시 주의 사항, 유통기한, 교환장소 등

섭취 시 주의사항

- 여러 종류를 한꺼번에 섞어 드시지 말고, 정해진 섭취량만 섭취
- 특정질환으로 치료 또는 약을 복용중인 사람은 섭취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

2018년까지 매년 취업자 20만명 늘어난다

국가고용전략회의, 향후 10년 인력수급 전망

향후 10년간 우리 경제의 인력 수요와 공급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18년까지 연평균 20만8천명씩 취업자가 증가하고 국내 산업구조가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재편된다. 또 매년 4만5천여 명의 전문대 및 대학 졸업자가 남아돌 것으로 예상돼 대학의 구조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통신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과학기술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오는 2018년 무렵 대학생이 될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라면 한 번쯤 염두에 둬야 할 유망산업군이다.

5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08~2018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정책과제'가 발표됐다.

2018년 취업자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 '10대 유망산업'으로는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통신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과학기술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꼽혔다.

산업별 고용구조를 보면 2018년 취업자의 72.5퍼센트(2008년 67.7퍼센트)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반면 농림어업 및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각각 4.8퍼센트, 14.7퍼센트로 줄어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구조가 심화될 전망이다. 참고로 선진국 서비스



충남테크노파크에서 5월 8일 열린 국가고용전략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이 영상미디어센터를 방문, 검색 프로그램 업체인 시맨틱스 직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올 상반기 대기업 신입사원과 인턴십 모집 전형이 4월에 몰린 점도 고용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사진은 SK가 서울 시내 한 대학에서 진행한 취업상담.

업 취업자 비중(2008년)은 ▲미국 79.5퍼센트 ▲영국 78.0퍼센트 ▲일본 68.9 퍼센트 등이다.

노동공급 측면에서 보면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증가하는 고령화(2008년 18.0퍼센트→2018년 27.2퍼센트), 전문대 이상 졸업자가 증가하는 고학력화(2008년 36.8퍼센트→2018년 44.0퍼센트),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2008년 49.9퍼센트→51.7퍼센트) 등 3가지 트렌드가 강화되는 가운데 인구성장률은 감소하지만 경제활동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취업자는 연평균 20만8천명씩 증가해 전체 취업자 수는 2018년 2천5백65만9천명에 이르고 고용률은 60.2퍼센트(2008년 59.5퍼센트)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학력별로는 전문계고와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전반적으로 인력수급 균형이 유지되겠지만, 전문대와 대학졸업자는 2018년까지 연간 약 4만5천명의 초과 공급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성장률 줄지만 경제활동 인구 지속적으로 늘 것

특히 2016년 이후 학령인구(만 6~21세)가 급감함에 따라 대학 정원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23년에는 고교 졸업자가 대학 입학 정원보다 20만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따라서 대학 구조조정이 곧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노동부 김영중 인력수급정책과장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은 향후 10년간 우리 경제의 인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전망하는 작업"이라며 "단기적으로 구직자의 직업 선택에 도움을 주고 중기적으로 재학생의 직업진로 설정과 대학, 학과의 정원조정이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 구실을 해 경제 전체적으로 과잉 교육투자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성장산업과 쇠퇴산업에 대한 정보를 국가고용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매년 인력수급 10년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다른 나라도 1~5년 주기로 인력수급 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G

글 · 박경아 기자

고용률 59%·실업자 1백만명 하회 취업자 56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

지난 4월의 취업자 수가 5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고용률이 59퍼센트를 넘어서고, 실업자 수는 1백만명을 밑도는 등 고용시장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5월 12일 발표된 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4월 취업자는 2천3백92만4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만1천명이 늘었다. 이는 2005년 8월 이후 최대 폭의 증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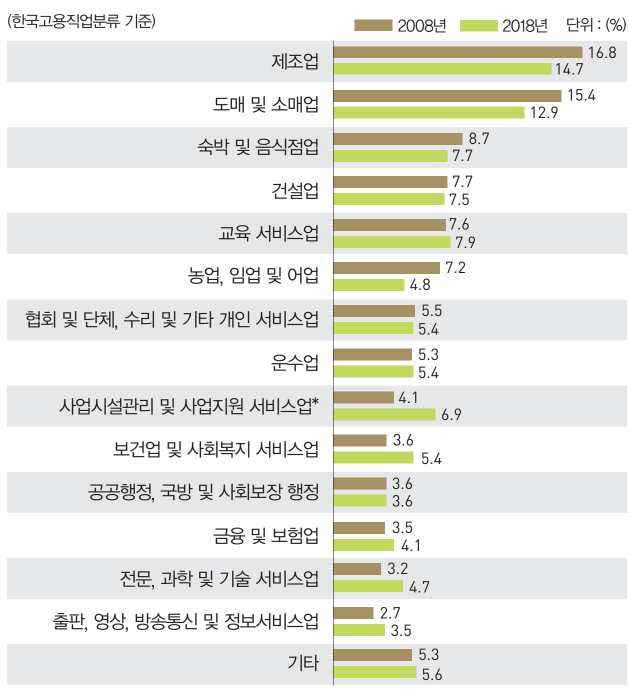
취업자 수는 특히 보건·사회복지 및 제조업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농림어업에서는 12만8천명이 감소한 반면 보건·사회복지(15만8천명), 제조업(14만5천명), 공공행정(9만8천명)을 중심으로 52만8천명이 증가했다.

4월 고용률은 59.1퍼센트로 전년 동월 대비 0.3퍼센트 포인트, 전월 대비로는 1.3퍼센트 포인트가 상승했다. 또 4월 실업률은 3.8퍼센트를 기록해 지난해 12월(3.5퍼센트) 이후 4개월 만에 3퍼센트대로 복귀했다. 올 들어 실업률은 1월 5.0퍼센트로 정점을 찍은 뒤 2월 4.9퍼센트, 3월 4.1퍼센트로 차츰 감소하고 있다.

4월 중 공식 실업자는 93만4천명으로 올 들어 처음 1백만명 아래로 내려섰다. 올 들어 실업자는 지난 1월 1백21만6천명을 시작으로 3월까지 3개월 연속 1백만명을 넘어섰다.

한편 만 15~29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8.6퍼센트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월 10.0퍼센트의 두 자릿수를 기록한 뒤 3월(9.0퍼센트)에 이어 연속 하락한 수치다.

2008·2018년 산업별 취업자



*사업시설관리업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건축물 일반청소업, 방제서비스업 등
사업지원서비스업 : 인력공급업, 고용알선업, 여행사업, 경비·경호업,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등

‘성숙한 민주주의’ 화합의 시대 열자

5·18 민주화운동 30주년 보훈처 등 행사 잇따라

5·18 민주화운동이 30주년을 맞았다. 5·18 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폭압과 불의에 항거한 의로운 시민들의 항쟁이었다. 30주년을 맞아 민주, 인권, 평화의 5·18 정신을 계승해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야 할 때다.

1980년 5월 18일 0시,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내려졌다. 국민들의 민주주의 요구를 진압하고 정권을 장악한 일부 정치 군인들은 모든 정치활동 및 옥내외 시위 금지, 언론·출판·보도 및 방송의 사전검열, 대학 휴교령, 직장 이탈 및 태업·파업 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헌법에 규정된 국회 통보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으로 봉쇄한 채 벌인 불법 조치였다.

전국이 폭력 앞에 침묵할 때 광주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분연히 일어섰다.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광주에서는 뜨거운 피와 눈물이 뿌려졌다. 계엄 해제와 민주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들은 계엄군에 무참히 짓밟혔다. 2백56명이 목숨을 잃고, 77명이 행방불명됐으며 3천3백33명이 부상하는 등 총 5천1백98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계엄군의 무력진압으로 수많은 시민이 목숨을 잃었을 뿐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은 폭도로 몰려 감옥에 갇혔지만, 광주시민들의 의로운 항거는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져 이 땅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밑거름이 됐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은 4·19 민주혁명과 함께 깨어 있는 시민이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임을 재확인한 사건이었다. 시민들은 교과서를 통해서는 몇십 년이 걸려도 깨닫지 못한 진정한 인권의식에 눈을 뜨게 됐으며 부당한 권력에는 저항권으로 맞서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깨달았다.

5·18기념재단 윤광장 이사장은 “5·18 민주화운동은 민주, 인권, 평화의 염원이 담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려 한 숭고한 민중항쟁이었다”며 “이제 그 뜻을 계승해 화해와 화합,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목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은 한 유가족이 그날을 기억하는 듯 생각에 잠겨 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5·18 민주화운동이 어느덧 30주년을 맞았다. 5·18 유공자의 희생을 기리고 민주, 인권, 평화의 5·18 정신을 계승하는 다양한 행사가 전국에서 열린다.

제3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은 5월 18일 오전 10시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소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열린다. '5월, 미래를 비추는 빛'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념식에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회원과 사회 각계 대표, 인터넷 참여희망 국민 등 약 2천5백명이 참석한다.



국가보훈처

국립 5·18민주묘지 추모관에는 5·18 민주화운동의 자료들이 전시돼 있다.

기념식에 앞서 5월 17일 오전 9시 국립 5·18민주묘지에서는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주관으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제가 열린다.

다양한 문화행사도 펼쳐진다. 5월 19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는 뮤지컬 〈화려한 휴가〉 공연이 있고, 5월 22일에는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주관으로 '제8회 전국휘호대회'가 개최된다.

또 5월 27일 저녁 7시 30분 구(舊)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는 5·18구속부상자회 주관으로 기념식과 기념공연, 시민·민주유공자 한마당 등 부활제가 펼쳐진다. 5월 26~28일 전남대와 조선대에서는 5·18기념재단 주관으로 '5·18과 세계, 그리고 아시아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광주서 기념식… 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행사 잇따라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5월 21~22일 광주 전역에서 '5·18 민주화운동 2세 사적지 순례'를 하고, 5·18 민주화운동 30주년 행사위원회는 5월 30일까지 구 전남도청, 5·18자유공원, 망월동 묘지, 주남마을 등을 돌아보는 '5·18 역사기행'을 연다.

5·18기념재단과 광주도시철도공사는 5·18 민주화운동 30주년을 기념하는 5·18 테마 지하철을 5월 11일부터 7월 16일까지 운행한다. 2007년부터 운행돼 올해 네 번째를 맞는 5·18 테마 지하철은 '가슴마다 꽃으로 피어 있으라'는 주제로 열차를 5월 관련 문화예술 콘텐츠들로 꾸몄다.

4량으로 편성된 테마열차에는 각 열차마다 '80년 5월'과 관련된 소설, 시, 영화, 음악, 만화가 펼쳐져 젊은 세대에게 5·18 민주화운동을 알리고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5·18 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행사 기간에 전국에서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는 참배객을 위해 주요 행사장을 경유하는 임시버스를 운행한다. G

글 · 이혜련 기자

"민주화 정신 계승해야" 많아

'5·18'에 대한 누리꾼의 반응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누리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5·18기념재단은 5·18 민주화운동 30주년을 맞아 5·18 민주화운동이 인터넷상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으며, 관련 정보가 누리꾼 사이에서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5·18 온라인 구전조사'를 실시했다.

분석 결과 5·18과 관련한 긍정적 메시지의 비율은 42.1퍼센트로, 민주화운동으로서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주장과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글이 많았다. 또 5·18 바로알기 정보 제공, 5·18재단 및 단체 활동, 기념행사와 관련한 글 등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중립적 글은 36.5퍼센트였다.

하지만 5·18이 북한의 개입에 의해 일어났다는 등의 부정적인 글도 18.4퍼센트나 됐다. 부정적인 글을 분석한 결과 이 글들은 특정 카페 몇 곳에 집중적으로 게시돼 있고, 퍼나르기 등을 통해 그들 사이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18기념재단 이기봉 총무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인터넷 공간에서 5·18에 대한 부정적인 글은 많지 않고 영향력도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5·18에 대해 악의적인 내용을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팀장은 또 "누리꾼 및 온라인 파워블로거, 트위터 사용자들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온라인 캠페인을 벌여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긍정적이고 공익적인 메시지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구전조사 전문기관인 (주)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이뤄졌으며, 2006년 1월 1일부터 올해 4월 7일까지 인터넷에 게시된 글을 수집해 분석했다. 분석은 포털사이트 다음과 네이버의 지식iN, 카페, 블로그, 아고라 등에서 '5·18' '광주항쟁' '광주사태' 등을 키워드로 전체 3만 포스트를 수집한 후 중복 및 유효하지 않은 글을 없애고 총 4천4백36개의 포스트와 5천55개의 메시지를 유효 표본으로 삼았다.

"한국, CEO 전술로 위기 극복했다"

〈뉴스위크〉 등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위기 극복 과정 호평

대한민국의 경제위기 대처 노하우와 성공 사례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5월 10일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와 뉴질랜드 일간지 〈도미니언포스트〉는 논평과 기고를 통해 "다시 한 번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 글로벌 경기침체를 잘 헤쳐나가고 있다."

한국이 2008년에 불어닥친 세계적 경제위기를 잘 극복해냈다고 호평하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 매체는 우리나라가 경제 회복세에 들어선 원인을 설명하며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과감하고 현명한 리더십이 빛을 발했다"고 분석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지난 5월 10일 마이클 프리드먼과 B.J. 리가 쓴 '한국, 최고경영자(CEO) 전술로 위기를 극복하다(South Korea Survived Recession With CEO Tactics)'란 기사에서 "한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CEO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의 투자 촉진 등 큰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다.

美 〈뉴스위크〉 "진정한 CEO 출신 대통령 있어 가능한 일"

〈뉴스위크〉는 "현명한 다국적 기업들의 상식적인 전략은 경쟁사들이 침체 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맬 때 새 시장과 신상품에 대거 투자하는 것"이라며 "한국은 이처럼 쉽지 않은 일을 해낸

동아DB



최근 "한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이 빛을 발했다"는 긍정적인 외신 보도가 잇따랐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월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녹색성장 홍보대사인 가수 비(왼쪽), 탤런트 이다해 씨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60년 전 한국은 한반도를 두 동강 낸 파멸적 전쟁의 위기에 있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 스스로를 선진국이라 부르며 빈국에 대한 원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세계 최초의 국가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성공은 진정한 CEO 출신의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의 대통령이 된 그는 장기적인 안목(Long-term View)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런 적극적인 정책은 한국이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 글로벌 경기침체를 빠르게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지난해 1월 경기침체가 한창일 때 이 대통령은 국내 기업들에 '어려운 경제 여건은 호전되게 마련이고, 위기 후 전략(Post-crisis Strategy)을 마련하는 것은 결코 시기상조가 아니다'고 하면서 투자를 격려했다"며"정부 예산을 공공부문 연구개발(R&D)에 집중하고 투자에 대한 세금공제를 확대해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뉴스위크〉는 이 대통령의 이러한 전략에 힘입어 "한국이 지난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3.2퍼센트 성장을 통해 불황에서 가장 먼저 벗어나는 결과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한국의 휴대전화와 액정표시장치(LCD) TV, 자동차 수출업체들이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시장점유율을 높였다"는 세계 최대의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의 평가를 인용하면서 "이 대통령은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통령 신분이어서 성과급을 받는 위치는 아니다"고 전했다.

뉴질랜드 일간지 〈도미니언포스트(Dominion Post)〉도 5월 10일 '존 키 총리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점(A lesson for John Key from South Korea)'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존 키 뉴질랜드 총리는 한국의 과단성 있고 단호한 녹색성장 정책 추진을 배워야 한다"고 보도했다.

〈도미니언포스트〉 "뉴질랜드 총리, 한국에게 배워야"

최근 한국을 방문한 뉴질랜드 언론인 콜린 제임스가 쓴 이 기사는 "60년 전 한국은 한반도를 두 동강 낸 파멸적 전쟁의 위기에 있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고 설명한 뒤 "하지만 이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 스스로를 선진국이라 부르며 빈국에 대한 원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아DB

〈뉴스위크〉는 미국 모건스탠리 평가를 인용, "한국이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휴대전화, LCD TV 등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였다"며 이 대통령의 CEO 리더십을 칭찬했다. 사진은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있는 모건스탠리 본사.

또한 "한국은 새로운 자국의 틈새시장을 통합해 첨단 경제로 성장하고 중국의 도전을 물리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키 총리가 5월 20일 예산안을 발표하게 되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키 총리가 '한국으로부터 본받을 것이 있다'는 논지를 분명히 했다. '녹색성장'을 정의하고 발전시키라는 게 그것이다. 이와 함께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 건설, 포스코의 저탄소 철강 생산공정, 4대강살리기 사업 등을 예로 들며 "이 같은 단호한 결단을 보면 한국 사회가 녹색성장을 이뤄낼 것임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키 총리는 '녹색'이 '성장'을 저해할까 우려하고, 녹색당은 그 반대 경우를 걱정한다. 이는 '부국' 의 방어적 태도이지 '개발도상국'의 단호함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또 "방어적인 태도에서 단호한 자신감으로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 키 총리의 큰 도전과제이자 예산안 통과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내용의 외신 보도가 알려진 지난 5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 겸 고용전략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40만1천명 증가하고 실업률은 3.8퍼센트로 전월보다 0.3퍼센트 포인트 낮아지는 등 긍정적인 고용동향과 경제 회복세가 보고됐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대한민국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경제지표가 발표되고 대통령의 역량을 평가하는 외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경제지표는 외신 보도와 동떨어져 있지 않다"고 전했다. G

글 · 김민지 기자



이번 서울국제도서전 행사에는 네덜란드, 독일 등 해외 23개국 출판사가 참여해 다양한 외국 도서들을 선보였다.



디지털 특별관에서는 전자책 콘텐츠와 전자책 단말기가 전시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한국, 프랑스를 읽다’

‘서울국제도서전’ 베르베르 초청 강연 등 인기





올해 서울 국제도서전의
주빈국인 프랑스 작가들의
책들이 전시돼 있다.



개막 첫날 '2010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독자들이
가장 만나고 싶은 작가'로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초청됐다.

국내에서 만나기 힘든 세계 유명
저자들의 창작 그림책들이 전시된
'세계 우수 그림책' 코너.



올해 16회째를 맞은 서울국제도서전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국내 최대의 도서전으로 꼽히는 서울국제도서전(대한출판문화협회 주최)은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닷새간 '책과 통하는 미래, 미래와 통하는 책'이라는 주제로 지구촌 책 잔치를 마련했다. 국내 6백여 개 출판사, 서점, 저작권 에이전시 등과 네덜란드, 독일, 이란 등 해외 23개국 74개 출판사가 참여해 7백50여 개의 부스를 풍성하게 채웠다.

올해 도서전의 주빈국은 프랑스. '한국, 프랑스를 읽다'라는 주제로 1백여 개 출판사가 프랑스와 관련된 역사, 문화, 여행 등 다양한 분야의 책 1천8백여 종을 전시했고 마크 레비, 에르베 튈레 등 프랑스 작가 초청행사도 열었다.

주빈국 프랑스… 프랑스 역사·문화 등 1800여 권 전시

독일 북아트 재단의 협조로 독일 국제 북디자인상 콘테스트 수상작을 전시하는 '아시아 북아티스트 특별전', 좋은 책 읽기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매년 선정되는 '대한출판문화협회 선정 도서 특별전', 호랑이를 주제로 한 그림책을 모은 '호랑이와 환경' 등 독자들의 취향과 연령을 고려한 다채로운 특별전도 선을 보였다.

또한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전자책 콘텐츠를 감상하고, 전자책 단말기를 사용해볼 수 있는 '디지털 특별관'도 마련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무엇보다 관객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은 것은 '2010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독자들이 가장 만나고 싶은 작가' 행사. 개막 첫날인 12일에는 〈개미〉 〈파라다이스〉 등으로 유명한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독자들 앞에서 강연했다.

베르베르는 이날 강연에서 좋은 작가가 되는 법으로 "하루 한 시간씩, 마음에 들지 않아도 꾸준히 써보라"며 "창의적인 글쓰기를 위해선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G

글 · 김민지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내집에서 그대로
당당한 노후를 누리세요

(70세, 시가 5억원 주택 월 177만원 평생 수령)

든든한 노후자금, 주택연금이 답이다!

- ▶ **주택연금** : 소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를 받는 제도
- ▶ **가입대상** :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으로 1주택 소유자
- ▶ **대상주택** : 시가 9억원 이하 주택
- ▶ **상품특징** : 평생 거주, 평생 연금수령, 평생 배우자도 혜택

여행가기 | 손주들과 쇼핑하기 | 친구에게 선물하기 | 정원에서 꽃 가꾸기 | 건강 챙기기 | 손주들 용돈주기

국가가 보증하는 주택연금이 당신의 행복노후를 후원합니다

HF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 - 8114
www.hf.go.kr

기획특집

서민에게 희망을 쏜다

저신용자, 영세 자영업자에게 힘을 주는 금융 지원이 있습니다.
집 없는 서민에게 내 집이 되어주는 보금자리주택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마음 놓고 일하러 갈 수 있는 보육제도가 있습니다.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의 꿈을 키워주는 든든학자금도 있습니다.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의료 지원과 복지 혜택, 긴급구호와 일자리…
서민이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한 따뜻한 배려입니다.



일러스트 · 박용인

서민 체감 그날까지 구석구석 정책의 손길을

우리나라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가운데 서민생활 지원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미소금융 지역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청년층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기 위한 든든학자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에겐 양육수당도 지원된다.

조영철 기자



따뜻한 날씨에 서울 광진구 자양동 골목시장을 찾은 한 가족. 파는 이도, 사는 이도 즐거운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까지 정부의 다양한 서민정책들은 지속될 것이다.

최근 연일 해외 뉴스 앞머리를 장식하는 것이 유럽발(發) 경제위기의 진원지인 그리스 소식이다. 고전문화의 보고(寶庫)에서 유럽 경제의 '낙제생'으로 전락한 그리스는 국가부도 위기에 몰리자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EU)으로부터 앞으로 3년간 총 1천1백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받기로 하고 5월 12일 이 중 55억 유로를 긴급 지원받았다.

그런데 IMF가 지원 조건으로 제시한 긴축정책에 반대하며 시작된 노동조합의 총파업이 격렬한 폭력사태로 번졌다. 미국의 경제전문 통신 〈블룸버그〉는 이로 인해 그리스의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입어 그리스 패키지 여행상품 가격이 30퍼센트나 떨어졌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은 5월 10일 자신의 칼럼에서 그리스에게 "한국의 외환위기 극복 사례를 배우라"고 충고했다.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은 우리 국민에게 10년 전 외환위기를 반추하며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한국이 잘 극복하고 있는 데 대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한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4월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3'로 한 단계 내린 반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상향조정(A2→A1)해 1998년 외환위기 이전으로 회복시켰다.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빠르게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우리나라는 이번 유럽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무디스가 국가신용등급을 상향한 4개국 중 하나다. 하지만 한국을 제외한 칠레,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등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로, 거의 '맨손'으로 위기탈출에 성공한 한국의 처지와 비교할 바가 아니다.

> 정부의 서민정책 중에서도 '3대 핵심정책'이 보금자리주택, 든든학자금, 미소금융이다. 이들은 우리 국민에게 가장 절실한 주거, 교육, 경제적 어려움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다.

올 들어서도 1분기에 7년 만의 최고 성장률(전년 동기 대비 7.8퍼센트 증가)을 기록하고, 경기에 민감한 여성 취업자 수가 지난 3월 12만3천명으로 급증(2월 9천명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경제성장 속도를 되찾고 있다는 징후들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경기회복의 온기를 가장 늦게 체감할 수밖에 없는 서민을 위한 정책들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3월 12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2009년 7월부터 범정부적으로 마련한 '서민생활 지원정책'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해 확정지었다. 국무총리실 정책분석관실 천명환 과장은 "서민생활 지원정책을 평가한 결과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주요 과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전했다. 국무총리실에서 ▲영세 자영업자,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보증 지원 ▲보육시설 미이용자 양육수당 지원 ▲보금자리 주택 공급 등 3가지 서민생활 지원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0퍼센트 이상이 실효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서민정책 중에서도 '3대 핵심정책'이 보금자리주택, 든든학자금, 미소금융이다. 이들은 우리 국민에게 가장 절실한 주거, 교육, 경제적 어려움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다.

7년 만의 최고 성장률 기록… 경기회복 가시화

2008년 9월 발표된 보금자리주택 1백50만 가구 건설계획은 시세보다 50~70퍼센트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혀주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올 1학기부터 시행되고 있는 든든학자금은 학생들이 대학 졸업 후 스스로 돈을 벌 때부터 학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함으로써 부모의 부담을 덜 뿐 아니라 학생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우려도 크게 줄였다. 자활 의지가 있으나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회사 접근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전국에 잇따라 지점을 열고 있는 미소금융은 서민을 '미소' 짓게 만드는 '희망금융'이다.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우리나라의 지난해 중산층 비율(1인 가구와 농어가 제외)은 66.7퍼센트. 이는 지난해(66.2퍼센트)보다 소폭 올랐으나 2003년에 비해서는 3.4퍼센트 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상류층은 1.9퍼센트 포인트 증가해 20.2퍼센트를 차지했고, 빈곤층도 1.5퍼센트 포인트 늘어 13.1퍼센트로 집계됐다.

따라서 정부의 서민정책은 서민생활을 지원해 '사회의 안전판'인 중산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집중되고 있다. 사실 '서민'이란 말은 전문용어가 아닌 '정서적 용어'다. 정부에서 판단하는 서민의 기준은 도시 가구의 중위(中位)소득(월 3백2만2천원·통계청 2010년 발표) 이하 가구들이다.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김성진 사회정책과장은 "세계화와 기술 진보로 중산층 감소는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급격한 고령화로 1인 가구가 늘고 있는 것이 중산층 감소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과 교육기회 확대, 능동적인 복지정책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해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중산층을 복원하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기 위한 정부 정책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나도 계속될 것이다. 국민 모두가 중산층이 되는 그날까지. G

글 · 박경아 기자

스스로 돕는 서민을 돕는다

대상자 아니라도 상담… 미소금융 통합서비스 나서

돈이 없어 극심한 절망에 빠져 있을 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조차 부질없이 들릴지 모른다. 그렇다면 '하늘'보다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서민의 친구들을 찾아보자. 미소금융은 서민금융 통합서비스로 거듭났고, 희망홀씨 대출, 온누리 상품권 등 서민들의 경제난 극복은 물론 경제적 자립까지 도와주는 안전망도 곳곳에 펼쳐져 있다.

서울에서 작은 점포를 열고 있는 A씨는 지난 5월 12일 서울 중구 을지로3가 우리미소금융재단을 찾아 대출상담을 했다. 얼마 전부터 장사가 잘 안 돼 식당으로 업종을 바꾸려 하니 2천만원 정도의 사업자금이 필요했다. 그런데 막상 상담을 받아보니 A씨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어 추가 대출이 불가능했다.

예전 같으면 A씨같이 미소금융재단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빈손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지만, 마치 '패자부활전'처럼 또 다른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다. 5월 10일부터 전국 38개 미소금융 지점에서 제공하는 '서민금융 통합서비스' 덕분이다.

서민금융 통합서비스는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미소금융 이외의 다른 서민금융기관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서민금융 창구'로, 미소금융의 업무 영역을 확대했다고 보면 된다.

미소금융 지점 방문자 중 미소금융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대출 ▲자산관리공사의 전환대출(고금리 채무를 연 10퍼센트대 저금리 채무로 전환)과 소액대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소액금융 등의 서비스 중 가장 적합한 것을 추천해 상담해주고, 필요하면 그 자리에서 인터넷과 팩스를 이용해 접수 대행까지 해준다.

이를 위해 미소금융 각 지점에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3개 기관 중 한 곳에서 직원이 파견 나



조영철 기자

자립 의지는 있지만 담보가 없거나 신용이 낮아 일반 금융권 이용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미소금융은 큰 희망이 돼주고 있다.
미소금융 지역지점인 우리금융미소재단에도 희망을 찾으려는 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전통시장과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은 5천원, 1만원 두 종류가 발행되고 있다. 새마을금고와 전북은행, 부산은행에서 구매 가능.



김승유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오른쪽) 등 미소금융 관계자들이 5월 5일 서울 공릉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와 대면 상담과 현장 신청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신용등급이 8등급인 A씨는 서민금융 통합서비스를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 A씨와 상담한 자산관리공사의 파견 직원은 "특히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분들이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하면 일정기간 후 낮은 금리의 대출로 바꿀 수 있다는 정보를 얻고 희망 가득한 표정으로 상담실을 나갈 때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미소금융재단 출범 당시 퇴직 금융전문가의 역량을 사회에 환원토록 하자는 취지를 갖고 계획한 대로, 우리미소금융재단 상담 창구에서는 경험 많은 우리은행 지점장 출신 상담위원들이 서민들의 갖가지 상담에 귀 기울이고 있다.

미소금융 미해당자에 원스톱 서민금융 창구 열어

지난해 12월 17일 우리미소금융재단이 문을 연 뒤 지금까지 하루 최대 1백명까지 상담을 해본 적도 있다는 문창준 전문위원은 "처음 사무실을 열었을 때는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사람들도 상담을 하러 와 실제 대출로 이어지는 사례는 전체의 5퍼센트 정도에 그쳤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상담자 수는 줄어든 반면 대출 성공률이 상담자의 20~30퍼센트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는 "상담을 하다 보면 형편은 어려운데 채무가 과다해 추가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안타까웠다"면서 "그래도 미소금융 대출을 통해 희망을 찾는 서민들을 보면 우리도 힘이 난다"고 말했다.

이곳 상담자들이 꼽은 가장 인상 깊은 대출 성공사례는 경기 평택시에서 세신업(洗身業·때밀이업)을 하는 40대 남성 대출자다. 서류상 부모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라 '사실상 고아'였던 그는 한때 서울역 앞에서 노숙자 생활을 했으나 새 삶을 살고자 목욕탕에서 세신사 일을 하게 됐다. 매일 일자리를 찾아 목욕탕 이곳저곳을 전전하던 그는 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랐고, 이를 위해 목욕탕 측에 지급할 보증금이 필요하게 됐다.

미소금융 대출 종류

대출 종류	대출 한도	대출 기간		이자율(연)	
		상환 기간	거치 기간	상환 기간	거치 기간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5천만원	5년 이내	1년 이내	4.5%	무이자 또는 4.5%
창업 임차자금	5천만원	5년 이내	1년 이내	4.5%	무이자 또는 4.5%
운영자금	1천만원	5년 이내	6개월 이내	4.5%	무이자
시설개선자금	1천만원	5년 이내	6개월 이내	4.5%	무이자
무등록사업자 지원자금	5백만원	5년 이내	6개월 이내	2.0%	무이자

* **미소금융 대출 대상** : 정부가 공신력을 인정한 신용정보사(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주식회사)가 평가한 개인 신용등급 중 1개 이상의 회사에서 7등급 이하로 평가받은 사람으로서 창업을 희망하거나 이미 사업을 운영 중인 개인 또는 자영업자.

그래서 수소문 끝에 이곳 상담실 문을 두드리게 됐다. 절실하게 필요했던 5백만원을 창업 임차자금으로 대출받은 그는 이제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며 성실하게 이자를 내고 적금까지 부으며 의욕적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서 서민들의 희망 찾기에 힘이 돼주고 있는 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저신용층과 영세사업자의 자활을 지원하는 '한국형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이다.

지난해 7월 도입된 뒤 현재까지 6대 기업과 5대 은행이 설립한 기업·은행 미소금융재단, 그리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대표자를 선발해 설립한 지역지점 38곳에서 운영자금, 창업자금 등을 시중 금리보다 낮은 이자(연 4.5퍼센트)로 지원하고 있다. 각 지점이 운영을 시작한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 말까지 모두 8백91명에게 65억원을 지원했고, 그 외 6천3백26명에 대한 대출심사가 진행 중이다.

미소금융중앙재단 운영지원부 윤재경 과장은 "재계와 금융권이 자금을 기부한 데 이어 직접 미소금융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는 점도 큰 의미가 있다"며 "향


조영철 기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도입된 '온누리 상품권'이 정착하면서 전통시장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되고 있다. 현대적으로 재단장한 서울 양천구 신월1동 신영시장.

후 10년간 2조원을 지원할 경우 20만~25만 가구(가구당 평균 1천만원 대출 시) 이상의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또 "서민금융 통합서비스 도입으로 미소금융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필요한 사업자금, 채무조정, 소액금융 지원, 전환대출 등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어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이 줄어들고, 서민지원 금융제도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소금융의 역할을 확대한 서민금융 통합서비스 외에도 정부는 폭넓은 서민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서민금융 포털사이트 '서민금융119'는 서민금융 이용자들에게 맞춤대출 정보에서부터 무료 신용 조회, 신용회복 지원제도 안내에 이르기까지 서민금융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통시장·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한국신용평가정보, 대부금융협회가 공동 출자해 만든 '한국이지론'은 간단한 개인정보만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검색할 수 있고,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환승론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스스로 돕는 서민'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경제정책들도 있다.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와 '온누리 상품권' 발행이 그것이다. 덕분에 전통시장·중소가맹점과 대형마트·백화점 간 신용카드 수수료율 격차가 해소됐으며, 전통시장·중소가맹점 등의 연간 신용카드 수수료 절감 효과는 올 한 해 약 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근로복지공단의 희망드림 창업지원 ▲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자영업 창업자금 융자 ▲한국마이크로크레딧의 희망키움뱅크 등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긴급한 생활자금 마련을 돕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근로자 생계비 신용보증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생활자금 대출,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국이지론의 희망홀씨 대출 같은 제도들도 눈길을 끈다.

'스스로 돕는 서민'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경제정책들도 있다.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와 '온누리 상품권' 발행이 그것이다. 정부는 지난 3월 말~4월 중순 연간 매출이 9천6백만원 미만인 전통시장 가맹점에 대해 2.0~

정경택 기자



노점상이나 우유배달원 같은 저신용, 무점포 사업자도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하면 필요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2.2퍼센트이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1.6~1.8퍼센트로 인하했다. 서울 시내 3대 대형마트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1.6~1.9퍼센트 수준이다.

또 전통시장 가맹점 이외에 연간 매출이 9천6백만원 미만인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별로 최대 3.3~3.6퍼센트이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2.0~2.15퍼센트로 인하했다. 현재 서울 시내 3대 대형백화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0~2.4퍼센트 수준이다.

이로써 전통시장·중소가맹점과 대형마트·백화점 간 신용카드 수수료율 격차가 해소됐으며, 전통시장·중소가맹점 등의 연간 신용카드 수수료 절감 효과는 2010년만 놓고 볼 때 약 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시장·중소가맹점의 수입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의미.

전국의 전통시장·중소가맹점에서 통용되도록 9개 지자체 상품권과 통합해 2009년 8월 선보인 '온누리 상품권'은 지난 연말까지 매월 평균 20억9천만원어치가 발행됐으나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대기업, 금융회사 등이 지속적으로 구매에 참여하면서 올해 1~3월에는 매월 53억1천만원어치가 발행될 만큼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은 지난 연말까지 6백70곳이었으나 올 3월 기준 7백82곳으로 늘었다. 42개 정부 부처와 1백60개 공공기관, 13개 대기업, 59개 금융회사가 온누리 상품권 사용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긴 하지만 과거 백화점 상품권이 정착에 7년이란 시간이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무척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셈이다.

서울 관악신사시장 등 49개 시장, 5백20개 점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2009년 10월, 시장경영진흥원) 온누리 상품권은 3퍼센트의 매출 증가와 신규 고객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돕는 서민'을 위한 서민 경제정책과 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만들어낸 '온누리'의 성공담이다. G

글 · 박경아 기자

서민에게 도움 되는 금융지원제도

종합 정보 안내

서민금융 119(s119.fss.or.kr) |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서민금융 포털사이트. 서민금융 이용자에게 거래 금융회사 선택부터 신용회복까지 종합서비스 제공.

한국이지론(egloan.co.kr)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한국신용평가정보, 대부금융협회가 공동 출자한 회사. 맞춤대출 서비스와 함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환승론 안내. 02-3771-1119

창업자금(자영업자 대상)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신용등급 9~10등급 자영업자와 노점상, 우유배달원 등 저신용·무점포 사업자에게 최대 5백만원 대출 보증.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936	**희망드림 창업지원** 고용보험 피보험자였으며 구직등록 후 6개월이 지난 사람, 고령 실업자, 실직 전 1년 이상 창업 희망 업종과 관련 분야에 종사한 실직여성가장 등에게 최대 7천만원 대출.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장애인 자영업 창업자금 융자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대상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희망키움뱅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공동체,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백50퍼센트 이하인 저소득자(부양가족 있는 저소득 여성 우선) 대상 최대 2천만원 대출.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02-365-0330

생활자금(근로자 대상)

저소득 근로자 생계비 신용보증 신용등급 6~9등급의 납세증명 가능한 3개월 이상 재직근로자(비정규직 포함) 대상 최대 5백만원까지 3년 또는 5년 대출 보증.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588-7936	**근로자 생활자금 대부**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월평균임금 1백70만원 이하 근로자 대상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7백만원(노부모 요양비 3백만원) 대출.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가동 중인(휴업 포함) 사업장의 재직근로자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사람 대상. 임금체불액 범위 내에서 최대 5백만원 대출. 근로복지공단 1588-0075	**희망홀씨 대출** 연소득 약 2천만원 이하 저소득자 중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대상 1백만~2천만원(은행별로 다름) 대출. 한국이지론 02-3771-1119

내집 마련·집값 안정 '보금자리주택' 인기

정부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1백50만 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도시 인근에 주변 시세보다 싼 가격에 공급돼 서민들의 주거는 물론 전반적인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정식(40) 씨는 지난해 11월 생애 처음으로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사전예약에서 서울 강남에 3자녀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것이다. 4남1녀를 둔 최 씨는 자녀 수, 무주택 기간, 수도권 거주기간 등을 합산한 점수에서 1백점 만점에 90점을 받았다. 최 씨가 당첨된 아파트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로 분양가는 약 4억원.

최 씨는 "보금자리주택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높은 강남에 파격적인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하게 돼 그야말로 로또에 당첨된 기분"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기 오산시에 살고 있는 최 씨는 2013년 보금자리주택에 입주하면 아이들 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 기간, 청약저축 불입기간 등을 기준으로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위해 꼬박꼬박 저축을 해온 서민들에게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꼽힌다. 게다가 도심과 가까운 위치, 저렴한 가격, 공공분양·공공임대·장기전세·영구임대 등 다양한 주거 유형, 사전청약 등도 매력적이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1백50만 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에 분양주택 70만 가구, 임대주택 80만 가구를 공급한다.

2차 지구 사전예약부터 15% 이상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올해 보금자리주택은 수도권에 14만 호, 지방에 4만 호 등 총 18만 호가 공급된다. 이 가운데 국민임대 5만2천 호, 영구임대 1만2천 호, 장기전세주택 9천 호, 10년·분납형 임대주택 3만 호 등 임대주택이 10만3천 호다.

정부는 무주택자의 자가 보유를 높이기 위해 5월 7~27일 진



동아DB

시범지구, 2차 지구, 위례신도시 등 보금자리주택은 도심에서 가깝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데다 가격도 저렴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정경택 기자

보금자리주택에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가정의 전력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는 홈 스마트그리드가 도입된다.

> **올해 보금자리주택은 수도권에 14만 호, 지방에 4만 호 등 총 18만 호가 공급된다. 이 가운데 국민임대 5만2천 호, 영구임대 1만2천 호, 장기전세주택 9천 호, 10년·분납형 임대주택 3만 호 등 임대주택이 10만3천 호다.**

행되는 2차 지구 사전예약부터는 10년·분납형 임대주택을 주변 분양가보다 15퍼센트 이상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기획총괄과 유상철 사무관은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궁극적으로는 주택 수급 안정과 주변 분양가 인하를 유도해 주택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아울러 기존 다가구주택, 부도 임대주택 등의 매입을 추진해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으로 7천8백 호를 공급한다.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도 임차인의 소득에 연동해 차등화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소득 1~4분위로 다양한 반면, 임대료는 소득과 상관없이 단일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임대료 차등화 시범지구를 기존의 2곳에서 5곳으로 확대했다.

서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이뤄지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주택 옥내 급수관을 개량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업으로 지난해 1천1백44가구가 혜택을 보았다.

나아가 정부는 세입자로 거주하는 기초생활자의 경우 옥내 급수관 개량 사업의 혜택을 볼 수 없다는 문제를 개선해 소유자가 아닌 실거주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 단독주택 위주로 시행되는 옥내 급수관 개량 사업을 저소득층이 밀집되고 노후화된 공동주택, 연립주택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G

글 · 이혜련 기자

가변형 설계 · 홈 스마트그리드…

‘진화’하는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의 디자인이 다양해지고 리모델링이 쉬운 가변형 설계가 도입된다. 또 에너지 소비를 30퍼센트까지 줄인 그린홈으로 짓는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5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보금자리주택 품격 향상 방안’을 보고하고 ‘품격 있고 실용적인 보금자리’ ‘함께 살아가는 보금자리’ ‘에너지를 절약하는 녹색 보금자리’ 등 3가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품격 있고 실용적인 보금자리’는 지구별로 차별화된 디자인 테마를 설정한다. 시범사업으로 서울 강남 임대단지에 국내외 유명 건축가를 대상으로 지명현상설계 공모를 실시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세계에 자랑할 만한 명품 디자인 공공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다.

장애인·고령자 돌봄, 육아 지원 등 거주자의 다양한 생활방식에 부응하는 생활맞춤형 주거모델은 경기 시흥 은계와 부천 옥길 지구의 임대단지에 만들어진다. 장애인·고령자 돌봄형은 사회복지시설, 육아 지원형은 공동육아, 방과후 교실 등의 시설이 만들어진다.

또한 2차 보금자리 지구부터 내력 벽체를 없애고 기둥을 도입한 무량(無梁)복합구조 형식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입주자의 생활방식에 맞게 실내를 꾸밀 수 있는 것은 물론, 내부 구조만 변경하는 리모델링이 간편해져 건물의 수명도 늘어난다.

‘함께 살아가는 보금자리’는 방과후 학습공간, 문화교실, 목공방, 유기농 텃밭 등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동시설을 단지 안에 조성하는 개념이다. 또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생활권 중심지역이나 가로변에는 공공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을 모은 복합커뮤니티를 조성한다. 단지별로 설치하던 관리사무소도 여러 단지를 묶어 하나로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런 커뮤니티 시설은 사업적 기업이나 자활센터의 활동공간으로 활용해 단지 내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육아나 간병 서비스 등 사회적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임대주택 단지의 커뮤니티 시설은 주거복지, 교육, 보육 등 정부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에너지를 절약하는 녹색 보금자리’는 단열 강화, 창호면적 축소, 대기전력 차단 등을 통해 에너지를 30퍼센트 이상 절감하는 그린홈으로 건설하는 것이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실시간 요금제를 연계해 가정의 전력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는 홈 스마트그리드, 자동감지센서로 에너지를 절감하는 지능형 LED 주차장 등 첨단기술도 도입된다. 아울러 마을 숲과 바람 길을 조성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대중교통망과 연결하는 등 녹색 생태마을로 조성한다.

이런 전략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보금자리주택은 과거 ‘주공아파트’ ‘임대아파트’ 등으로 상징되는 저렴한 서민주택의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맞벌이 부부, 어린아이, 노인, 장애인 등이 살기 좋은 자연친화형 주택, 첨단 고급주택으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게 맞는 일자리 찾기 정부 지원센터를 두드리세요

올해 정부의 핵심 정책은 일자리 지원이다. 그중에서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취업지원 제도를 마련해 일자리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여성 중증 장애인 '방과 후 강사'로 양성

보조교사 자격증을 가진 지체장애 5급 박경미(가명·46) 씨는 지난 4월 방과 후 공예강사로 취업했다. 박 씨는 "그동안 장애와 나이 때문에 보조교사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생산직만 알선받았는데, 이번 취업으로 꿈에 한 발짝 다가간 것 같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처럼 여성 중증 장애인이 방과 후 강사로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인천시교육청이 현대공예인협회, 여성인력개발센터와 함께 여성 장애인을 공예강사로 양성하는 프로그램 덕분이다. 컬러클레이, 스텐실 등 12가지 토털공예과정을 이수하면 방과 후 공예강사로 취업을 알선한다.

방과 후 공예강사는 공예라는 정서적 측면과 유연한 시간 활용 측면에서 투석이 필요한 신장 장애인, 호흡기 장애인 등 특정 유형의 중증 여성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호흡기, 정신, 시각, 뇌병변 장애 등 중증 장애인을 포함한 11명의 여성 장애인 공예강사가 배출돼 인천 지역 25개 학교에서 방과 후 강사로 근무하고 있다.

장애인 강사를 채용한 학교에서도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지만 기대 이상"이라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장춘식 지사장은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방과 후 강사가 여성 장애인들의 평생 일자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희망근로·소기업 취업지원' 안정적 일자리 창출

최성구(가명·44) 씨는 희망근로사업을 통해 희망을 갖게 됐다. 오랫동안 일자리를 찾기 위해 애썼으나 번번이 실패했던 최 씨는 지난 3월부터 희망근로 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을 통해 BK전자에서 일하고 있다. 4개월 후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 최 씨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기분이라며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PCB 설계조립 중소기업인 BK전자 유병기 대표는 "매일 현장에서 일할 사람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소기업 취업지원을 통해 우수한 인력을 소개받고 지자체에서 임금의 절반을 지원받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은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희망근로 인력을 취업시켜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임금을 분담하고, 희망근로가 끝난 뒤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면 지방자치단체가 2개월 이상 기업에 추가 지원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구직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소기업은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어 양쪽 모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의 올해 목표 취업자는 3천5백명. 4월 20일까지 1천7백69명이 취업했다.

행정안전부 정창섭 제1차관은 "일자리 창출이 국정 최대 과제인 만큼 희망근로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생활안정뿐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성에게 일자리 선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조민희(가명·33) 씨는 지난해 마산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 회계사무원으로 취업했다. 결혼 전 은행, 학교 서무과, 마트 경리파트 등에서 일했지만 결혼 후에는 살림만 해왔던 조 씨는 남편의 갑작스런 뇌종양 수술과 유치원생인 딸의 희귀병 진단을 받은 후 가장 노릇을 해야 했다. 조 씨는 딸이 유치원에 가는 8시 이후에 출근할 수 있게 집에서 가까운 직장을 원했다.

조건에 맞는 직장을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마산여성인력개발센터 상담자는 회사를 소개하고 조 씨가 면접을 볼 때마다 동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도왔다. 힘든 가정형편 때문에 수심이 가득했던 조 씨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많이 밝아졌다. 몸은 힘들어도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정경제의 위기를 겪고 있는 여성, 구직 희망 여성에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같은 취업지원기관과 연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일러스트 · 이우정

조영철 기자



정부는 가정경제의 위기를 겪고 있는 여성, 구직 희망 여성에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같은 취업지원기관과 연계해 직업교육훈련과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전국 76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3백85개의 맞춤형 직업교육이 운영된다. 직업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수강생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밑반찬, 보육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2개월 이상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 가장에게 월 15만원의 생계비가 지급된다. 지난해에는 3백49개 과정에 8천4백23명이 교육을 받았고, 수료생 중 3천7백57명이 취업했다.

저소득층 일대일 맞춤형 취업지원 '취업성공 패키지'

경기 안성에서 PC방을 운영하던 김영민(가명·39) 씨는 주변에 경쟁업소가 늘고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지난해 3월 폐업했다. 네 식구의 가장인 김 씨는 생계에 대한 압박감을 받았지만 재창업도 취업도 쉽지가 않았다. 점점 자신감을 잃어갈 무렵 가족의 권유로 고용지원센터에 갔다가 '취업성공 패키지'를 알게 됐다.

"취업성공 패키지 절차 하나하나가 저를 앞으로 한 발씩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심층면담을 통해 재창업을 할지 취업을 할지 심사숙고했고, 직업심리검사를 통해 제게 어떤 직업이 맞는지 알게 됐습니다."

PC방을 운영하기 전에 7년 동안 육류 다루는 일을 해왔고 육가공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김 씨는 지난해 10월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에 참가한 지 한 달 반 만에 고용지원센터의 소개로 관련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다.

취업성공 패키지는 최저생계비 1백50퍼센트 이하(4인 가구 기준 월소득 2백4만원 이하) 가구의 18~64세 가구원에 대해 맞춤형 취업지원을 하는 프로그램. 상담과 검사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취업지원 계획을 수립한 후 직업훈련이나 창업지원, 단기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근로의욕과 직업능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또 이력서 작성, 면접훈련 등을 실시해 취업 성공률을 높인다.

패키지 참여자가 직업훈련에 참가하면 최대 6개월간 월 20만원의 '훈련참여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백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이 사업에는 4월 말까지 6천9백명이 참여했으며 취업지원이 끝난 2천6백90명 중 1천4백79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직장경험 쌓은 후 더 나은 곳으로 '디딤돌 일자리'

노정규(가명·49) 씨는 28년간 군에서 복무한 후 전역했으나 군 외에는 직장생활 경험이 전혀 없어 취업이 쉽지 않았다. 그러다 '디딤돌 일자리'를 통해 5개월간 복지단체에서 경험을 쌓은 후 사회복지 분야의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됐다.

디딤돌 일자리는 직장생활에 기초능력이 부족한 취업 취약계층이 3~5개월의 직장생활 경험을 쌓은 후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것이다.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후 2주 이상 지나고 상담 결과 당장 취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복지단체, 지역 상공회의소, 보육시설, 학교, 직업훈련기관,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등에서 일자리 경험을 쌓도록 한다.

참여 기간에는 월 75만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하고 집단상담, 단기취업특강, 취업 알선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4월 말까지 3천8백78명이 참여했으며, 직장생활 경험이 없는 구직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화 한 통으로 일자리 찾는 '잡콜 서비스'

노동부의 잡콜 서비스는 인터넷 접근성이 취약한 정보 소외계층이 전화 한 통화로 간편하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는 서울 지역 8개 직종 일자리에 대해 시범 실시 중이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1544-1919로 전화하면 청소원, 경비원,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상점판매원, 신문·우유 등 배달원, 주차관리원,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취업 취약계층 집중 지원에 나섰다. 방과 후 교사, 소기업 취업지원, 잡콜 서비스 등 일대일 맞춤형 취업지원 제도를 마련해 일자리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차원 등 8개 직종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업체를 바로 전화로 연결해준다.

구인업체는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나 워크넷을 통해 구인등록을 하면 된다. 잡콜 서비스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지난 4월 19일 서비스를 시작한 후 4월 말까지 1천3백67건의 전화가 왔고, 통화 후 구인업체로 연결하거나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한 경우가 2백66건으로 이용 건수가 점차 늘고 있다.

취업하면 돈도 줘요… '취업장려수당'

경기 평택의 한 전자회사는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위치해 경비직원을 구하느라 어려움을 겪다가 평택고용지원센터의 알선으로 2명을 채용했다. 두 사람도 교통비 문제로 퇴직을 고려했으나 취업장려수당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속 근무하기로 마음을 바꿨다.

취업장려수당 제도는 구직자가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업 등 '빈 일자리'에 고용지원센터(지방자치단체, 민간고용중개기관 포함)의 알선을 받아 취업하는 경우 1인당 최대 1년간 1백80만원의 취업장려수당을 구직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

취업장려수당은 구직자의 취업난과 기업의 구인난을 동시에 해결하며, 4월 말까지 5천4백78명이 취업장려수당 지급 대상 일자리에 취업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직업훈련 기간 중에 생계비를 장기 저리로 대부해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환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이자는 1퍼센트다. 대부를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노동부 장의성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전반적인 취업난 속에서도 취업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취업 애로계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G

글 · 이혜련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Tel **1588-1519**
여성새로일하기센터 Tel **1544-1199**
노동종합상담센터 Tel **1350, 1544-1350**
잡콜서비스 Tel **1544-1919**

취업 취약계층에 '희망리본' 달아준다

경기 부천에 사는 주미자(가명·51) 씨는 이혼 후 심리적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다. 식당 아르바이트 외에는 직장생활 경험이 없는 데다 중졸 학력이라 구직에 어려움을 겪던 중 주민센터의 소개로 '희망리본 프로젝트'를 알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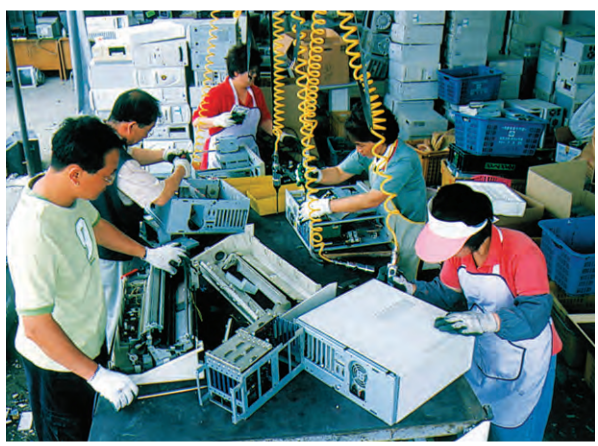
일자리 매니저는 주 씨와 상담한 후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곧바로 취업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 아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했다. 직업훈련 과정에서 딸의 간병, 전 남편과의 관계 등으로 중도에 포기할 뻔했으나 일자리 매니저의 지지와 독려로 6주에 걸친 이론, 실기, 실습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주 씨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일자리 매니저의 알선으로 요양보호사 취업에 성공해 5개월째 근무 중이다. 상담부터 취업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주 씨의 직업 만족도나 생활 개선도는 매우 높다. 단순히 취업에만 성공한 게 아니라 자존감을 회복하고 삶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이다.

'희망리본 프로젝트'는 취약계층이 일을 통해 스스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복지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경기와 부산에서 2천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됐고, 올해 전북과 인천으로 확대되고 참여 인원도 3천2백명으로 늘어났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해 취업교육 및 일자리 알선이 이뤄지며, 동행면접은 물론 성공적인 직장생활 적응을 위한 취업 후 관리도 지속된다. 또한 일을 하고 싶어도 가사나 건강 등의 사정으로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돌봄서비스나 건강진단 등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취업 애로요인을 덜어준다.

희망리본 프로젝트를 통해 올해 2월까지 1천22명이 취업하거나 창업했으며 6개월 이상 취업 유지율이 70.5퍼센트를 기록하고 있다. 일자리 원스톱센터 정연의 국장은 "저소득층에게 가장 큰 복지는 일자리"라며 "근로와 복지를 연계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활 촉진과 경제활동 유지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전했다.


일자리원스톱센터

희망리본 프로젝트는 맞춤형 직업교육 및 취업 알선과 함께 아이 돌봄, 가족 간병 등 복지 서비스도 연계 지원한다.

정경택 기자



'낳을수록 돈 버네' 다자녀 보육료 파격 지원

정부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보육과 교육에 대한 지원을 올 들어 더욱 강화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와 종일돌봄교실 운영을 활성화하고, 다자녀가정과 맞벌이가정의 보육료 지원을 늘리는 등 서민들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보육·교육정책은 사교육비와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

#1 1남 3녀를 둔 주부 지은순(37·서울 강북구 우이동) 씨는 요즘 그야말로 '살맛'이 난다.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시행한 보육료 지원 강화 정책으로 가계 부담이 크게 줄어든 덕분이다.

지난해 지 씨는 다자녀가구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보육료 일부를 지원받고 눈물을 머금어야 했다.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지 못한 터라 셋째 아이만 구립유치원에 보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첫째와 둘째의 교육비 지출도 만만찮은데, 셋째와 넷째를 모두 유치원에 보내려니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더구나 아이의 나이가 어릴수록 보육료가 비싸 넷째까지 유치원에 보낼 엄두가 나지 않았다. 막둥이의 유치원 입학은 어쩔 수 없이 보류됐다.

그러던 차에 정부가 올해 내놓은 다자녀가구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보육료 전액 지원 정책은 지 씨의 무겁던 마음의 짐을 덜어줬다. 현재 그의 셋째, 넷째 아이는 모두 보육료 전액 지원 혜택을 받으며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지난해에는 셋째를 구립유치원에 보내면서 매달 18만원을 냈는데, 올해는 셋째와 넷째를 모두 유치원에 보내면서도 정부가 보육비를 모두 지원해줘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없어요.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니 1년에 8백64만원(원비 36만원×2명×12개월)쯤 되더군요. 그만큼 절약된 돈은 초등학생인 두 아이의 교육과 저희 가족의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고 있지요."





정경택 기자

◀경기 가평군 임초리의 상면초등학교는 록밴드 활동 등 다양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에 자리한 경기대 도서관. 정부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대학에서 근로장학금 등 교내장학금을 스스로 확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2

"영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

경기 고양시 일산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 오지은(11) 양이 불과 3개월 전까지 입에 달고 살던 말이다. 하지만 지금 지은이에게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뭐냐고 물으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영어요!" 한다. 이런 변화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에서 비롯됐다.

지난 3월부터 지은이는 방과 후에 학교에 남아 영어 특기적성교육을 받고 있다. 친한 친구의 권유로 신청한 특기적성교육은 학원 강의에 비해 숙제의 양이 적고, 수업 방식도 딱딱하거나 지루하지 않았다. 정규 수업을 마치고 곧바로 영어교실로 이동하기 때문에 학원을 오가며 허비했던 시간도 절약됐다.

학원에 다니면서는 느낄 수 없었던 영어의 매력에 조금씩 빠져드는 동안 지은이의 생활태도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지은이의 어머니는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을 받기 전에는 영어공부를 끔찍이 싫어하던 아이가 요즘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영어사전을 뒤지며 숙제를 한다"고 대견해 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학원에 다녔지만 적응을 못해 3개월이 멀다 하고 이곳저곳을 전전하던 지은이는 이제 더 이상 학원을 옮기지 않아도 된다. 새롭게 영어에 재미를 붙인 지은이와 어머니가 내린 결론은 같다.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을 시작하길 참 잘했어요."

자녀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주려 삼천 번을 이사했다는 맹자의 어머니는 굳이 춘추전국시대로 거슬러가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세계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뜨거운 교육열로 무장한 우리네 어머니들은 전쟁의 상흔으로 헐벗었던 대한민국을 인재강국으로 키워낸 일등 공신이다.

그러나 지나친 교육열로 말미암아 '사교육 열풍'이라는 변종 바이러스가 탄생했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가 열렸는데도 서민들의 자녀 양육비 부담이 줄지 않는 것은 과도한 사교육비가 가계지출에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민들이 더 이상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10년을 사교육비 절감의 원년으로 삼고 다양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먼저 영어 사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초등학교 3, 4학년 영어 수업을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주당 1시간 이상 회화수업을 하게 했다. 영어과목의 수준별 이동수업 비율은 지난해 78퍼센트에서 올해 85퍼센트까지로 늘렸다.

수능 외국어 영역의 듣기평가 비중도 현재 34퍼센트에서 2014학년도까지 최대 50퍼센트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여기에는 영어수업을 기존의 시험영어에서 실용영어 중심으로 바

꿔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방과후 학교 운영도 지난해보다 더욱 활발해졌다. 현재 방과후 학교에서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주요 과목의 심화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해 서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사교육 없는 학교'도 지난해 4백57곳에서 2012년까지 1천곳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저소득층과 맞벌이가정의 자녀를 위한 유치원 종일반 이용 기회도 확대되고, 지난해 4천1백72실이 운영된 초등학교 돌봄교실도 6천1백72실로 늘어난다.

장애학생과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 지원도 추진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학생의 의무교육을 만 5세 유아와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하고, 전문계고를 대상으로 공모해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10곳을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학비와 급식비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자녀가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긴급 학비 지원 체제를 구축해 운영해나갈 방침이다.



조영철 기자

올해부터는 저소득층과 맞벌이가정 자녀를 위한 유치원 종일반 이용 기회가 확대된다. 사진은 경기 안양시 인덕원 어린이집.

다자녀·맞벌이가정 자녀 보육료 지원 늘려

무엇보다 올해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이 눈에 띄게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영·유아(만 0~4세)의 보육료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에서 소득 하위 50퍼센트까지로 확대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차상위계층 이하 가구)에게도 양육수당을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지난 3월부터는 다자녀가정과 맞벌이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도 확대됐다. 지난해까지 '두 자녀 이상 보육료'는 한 가구에 두 명 이상의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녀야만 둘째 아이에 대해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이런 제한 없이 출생 순위가 둘째 이상이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도 소득 하위 60퍼센트 이하에서 70퍼센트 이하 가구로 범위가 넓어졌다.

맞벌이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 조건도 한결 완화됐다. 종전에는 맞벌이가정이 보육료를 지원받으려면 가구의 전체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치(3인까지 3백78만원, 4인 4백36만원, 5인 4백88만원, 6인 5백34만원)를 넘지 않아야 했는데, 올해부터는 부부 중 소득이 낮은 사람의 소득에서 25퍼센트를 제외하고 75퍼센트만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약 1만8천명이 더 혜택을 보게 됐다.

'아이사랑 카드'를 통해 현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새롭게 다자녀·맞벌이 보육료를 신청할 필요도 없다.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아동의 기존 신청자료를 활용해 새로 도입된 다자녀 보육료와 맞벌이 보육료의 선정 기준에 맞는지를 판별해 자동으로 자격을 변경해주기 때문.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구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차등보육료	소득 하위 50% 이하	224만원 이하	258만원 이하	289만원 이하	316만원 이하
	소득 하위 50% 초과~60% 이하	294만원 이하	339만원 이하	380만원 이하	415만원 이하
	소득 하위 60% 초과~70% 이하	378만원 이하	436만원 이하	488만원 이하	534만원 이하
만 5세아 보육료 (소득 하위 70% 이하)		378만원 이하	436만원 이하	488만원 이하	534만원 이하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소득 하위 50% 초과~70% 이하)		378만원 이하	436만원 이하	488만원 이하	534만원 이하

*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 * 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동아DB

취업 후 학자금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 대출이 처음 시행된 지난 2월 2일 서울 남대문로의 한국장학재단에는 이를 신청하려는 학생과 학부모의 방문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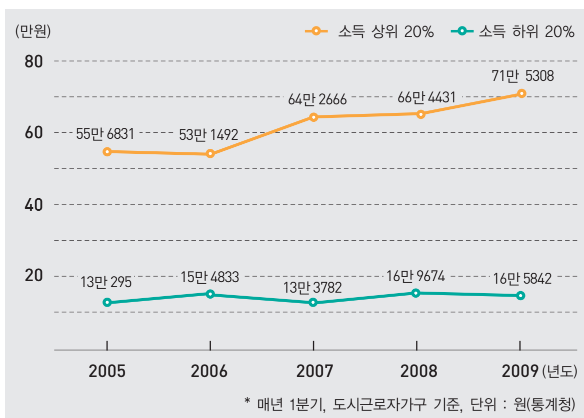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신인식 사무관은 "시장조사를 해보면 경제적 빈곤층이 아니더라도 많은 가정에서 자녀 양육비 문제로 출산을 꺼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올해부터 대폭 늘린 보육비 지원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동력이 됐으면 한다"고 소망했다.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한 '든든학자금'도 지난 2월부터 시행됐다. 든든학자금은 졸업 후 소득이 4인 가족 최저생계비(2009년 기준 1천5백92만원)를 넘어서는 시점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는 방식. 장기 연체로 신용유의자가 된 학생에게도 대출을 허락한다.

든든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대상은 소득분위 1~7분위에 속하면서 신입생의 경우 수능 또는 내신 6등급 이내, 재학생은 성적 B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자다. 올해 이런 기준에 따라 든든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은 10만9천4백26명. 신입생과 재학생이 각각 60 대 40의 비율을 차지했다.

교육과학기술부 학생학부모지원과 남혁모 사무관은 "정부와 국민이 한마음으로 지난 1월에 입법화한 대학 등록금 상한제와 든든학자금이 앞으로 대학생의 학비 걱정을 줄여줄 것"이라며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대학에서 교내 장학금의 지급 비율을 자발적으로 늘리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득 상·하위 20% 교육비 지출 규모



이 밖에도 정부는 학자금 대출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의 지원 내용을 보육시설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보육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 중이다. G

글 · 김지영 기자



서민생활 안정 더 촘촘히 보살핀다

서민들의 생활수준을 탄탄하게 향상시키려면 물질적 지원과 혜택에서 더 나아가 자립 여건을 마련해주는 일도 병행해야 한다.
당장의 주머니 사정을 해결하는 것도 급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먹고살 것이냐가 더 큰 걱정거리다.
법과 제도가 이런 서민들의 발목을 잡거나 희망을 꺾는 일 없이 뒤에서 든든한 힘이 돼줘야 한다.



동아DB

운전학원 수료자가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기 위해 수료증이나 졸업증을 유료로 발급받아야 하는 법도 개정된다. 사진은 자동차 면허시험장 수납창구.

#1 서울 구로구 독산동에 사는 조선미(가명·47) 씨는 올해 초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었다. 조 씨는 2년여 전 회사의 부도로 직장을 잃은 남편 대신 취업전선에 뛰어들었다. 부부는 둘 다 초혼에 실패한 뒤 만나 아이가 없었지만 남편의 실직으로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다. 조 씨는 소규모 가방 봉제공장의 보조 재단사로 취업했다. 월 1백40만원의 박봉이지만 알차게 살림을 꾸려나갔고 저축도 조금씩 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봉제공장이 누적된 적자를 이기지 못해 문을 닫고 말았다. 조 씨는 이곳저곳에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경기침체 여파로 식당 허드렛일조차 구할 수 없었다. 그러는 사이에 실업급여(하루 2만8천8백원) 수급 기간 1백20일을 훌쩍 넘겼다. 눈앞이 캄캄했다. 재취업 가능성이 없는 실직자에게 주는 개별연장급여를 받으려 했지만 자격이 안 됐다.

부양가족 중 18세 이상 자녀,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이 있어야 수급 자격이 되는데, 한 집에 사는 사람은 소득이 없는 남편뿐이었다. 정말 길거리로 나앉을 판이었다.

해가 바뀌고 거의 자포자기한 심정이었을 때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는 뉴스를 들었다. 특히 2월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2010 규제개혁 추진 계획'에는 개별연장급여 지급요건 완화 방안도 포함돼 있었다.

조 씨처럼 소득 없는 배우자만이 부양가족일 경우에도 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 씨는 이제 최대 60일간 실업급여의 70퍼센트, 또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조 씨에겐 삶의 한 줄기 희망이나 다름없었다. 살림살이를 지난해보다 더 줄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숨통이 트였다. 일자리를 얻기는 여전히 쉽지 않지만 마음만은 한결 가벼워졌다.

#2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김운상(가명·53) 씨. 그는 동네 놀이터 인근의 3평 남짓한 가건물에서 혼자 생활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다. 한때는 알코올 중독으로 거리를 전전했지만 5년 전부터 폐지, 병, 고철 등을 수집해 고물상에 팔아 생계를 꾸려나간다. 하루 종일 제기시장 등을 돌며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다니지만, 벌이는 한 달에 25만원이 채 못 된다. 2010년 최저생계비 기준인 50만4천3백44원에 한참 못 미치는 소득이다. 김 씨는 최저생계비에 소득 인정액 등을 뺀 액수와 의료비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9월부터 김 씨의 소득은 '크게' 늘어났다. 제기동의 한 고물상에 직원으로 취업한 것. 55만원의 월급을 손에 쥘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당시 법으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김 씨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지 못할 처지가 됐다. 이를 알게 된 김 씨는 고물상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차라리 기초수급대상자로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한 것. 그 후 김 씨는 아예 구직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했다.

김 씨와 같은 사례가 속출하자 법제처는 지난해 12월 국민불편법령 개폐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여기엔 기초생활수급자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일정한 완충 기간 동안은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안도 포함됐다.

앞의 두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정부는 관련 부처별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규제·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서민들이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생활공감대책'을 마련해 실행하고 있다.

먼저 국무총리실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서민을 위한 규제 개혁을 추진해왔다. 일과 복지를 통한 자립 여건 마련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체계 정비가 핵심. 올해 들어서도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서민체감형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주요 규제 개선안을 보면, 우선 취약계층 고용보험 수급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개별연장급여 지급 조건을 완화했다. 부양가족 조건에 '소득 없는 배우자' 등 요건이 추가돼 개별연장급여 수혜 대상이 약 3만4천명(7만8천명→11만2천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민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화상 환자의 본인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일반 환자와 동일하게 입원·외래 본인 부담률(입원 20퍼센트, 외래 30~60퍼센트)을 적용하던 현행 규정을 개선한 것. 화상 관련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따른 대책이다. 이제 중증 화상 환자는 중증질환군에 포함돼 입원·외래 본인 부담률이 5퍼센트로 낮아진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교육기관 취업금지 기준을 신규 채용에만 한정하고 있는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신규 채용뿐 아니라 현직 종사자에게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 보통 아동 대상 성범죄는 면식범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老老케어 가정에 월 30만원 현금 보상 추진

'노노(老老) 케어' 가정에 대한 현금 보상도 추진한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요양보험 대상자 중 가족이 직접 돌보는 가정에 대해선 별다른 혜택이 없었다. 그러나 배우자 등 가족이 직접 요양보험 대상자를 수발하는 가정에 현금 보상을 해주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요양보험 대상 노인부부 약 5만 가구 중 약 20퍼센트가 월 30만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세 임대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임대 수요가 높은 수도권 소규모 도시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다. 경기 양주, 오산, 동두천, 안성, 이천, 포천 등 10개 시군을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수혜 범위도 늘려 고시원, 여인숙, 그리고 범죄 피해자 등 긴급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도 전체 물량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전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제처도 취약계층 배려에 중점을 두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등을 개선하는 '국민불편법령 개폐 사업'을 적극 펼치고 있다. 법제처는 지난해 12월 국민불편법령 국무회의 5차 보고를 통해 개폐 과제 73건(단기 57건, 중장기과제 16건)을 확정해 발표했다.



동아DB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 e음'이 본격 운영되면서 정보에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취약층의 복지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동아DB



동아DB



▲▲정부는 요양보험 대상자를 수발하는 '노노(老老)케어' 가정에 대한 현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법제처는 취약계층 배려에 중점을 두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등을 개선하는 '국민불편법령 개폐 사업'을 2008년부터 적극 펼치고 있다.

내게 해당되는 복지 혜택은?

지자체, '통합 관리망' 가동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했다가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약간 초과해 자격을 얻지 못한 염성섭(가명·52) 씨.

"당연히 올해에도 안 될 줄 알았죠."

염 씨는 한 번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한 후 아쉬움에 마음을 접었다. 올해 최저생계비 기준이 인상되면서 염 씨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염 씨는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이처럼 서민들은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느라 정부의 복지정책 정보를 제대로 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염 씨도 최저생계비 기준이 해마다 바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 e음'을 본격 운영하면서 염 씨 같은 서민에게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미리 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각종 조사 및 행정업무가 과중한 나머지 직접 서민들을 찾아가지 못하다 보니 서민들의 '복지 체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었다.

행복 e음은 27개 기관 2백15종의 소득·재산 자료와 인적 변동사항 등을 연계한 종합정보 시스템. 이를 통해 복지 대상자의 정확한 선정 및 사후관리가 한결 쉬워졌다. 공무원들로서는 불필요한 행정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직접 찾아가는 서민복지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우선 1~6급 장애인 중 2급(안면부 90퍼센트 변형)에서 4급(안면부 60퍼센트 변형 혹은 코 형태의 3분의 2가 없는 경우)까지만 인정하고 있는 안면장애인의 등급과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안면장애인의 경우 저소득층이면서 취업도 곤란한 형편이라 국가의 보호가 절실하다.

불편 주는 법령 개선 '국민불편법령 개폐 사업' 활발

이 밖에도 ▲아파트 노후 승강기 교체 시 취득세 추가 납부 면제(의원 발의 예정) ▲사회복무요원 활용으로 서민층 사교육비 경감 ▲국민건강보험료,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 ▲운전학원 기능검정 수료증 및 졸업증 발급 수수료 폐지 등이 서민 생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과제로 확정돼 개선안이 시행 중이거나 국회 입법 절차 중에 있다.

이어 지난 4월 20일 열린 국무회의 6차 보고를 통해서도 서민생활 안정 등의 법령 개폐 과제 60건을 추가로 선정해 발표했다. 새 과제엔 장애인 콜택시 이용 시 거주지별 차별 개선,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종사하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 명시, 건강보험증 폐지 등이 포함돼 있다. 장애인 콜택시는 각 시도별 자치 법규에 따라 운행되기 때문에 그 지역 장애인만 탈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른 지역 거주 장애인도 다른 지역에서 자유롭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교육기관 취업금지 기준을 신규 채용에만 한정하고 있는 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신규 채용뿐 아니라 현직 종사자에게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 보통 아동 대상 성범죄는 면식범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의 계좌이체 ▲토지 보상 시 보상대상자 통지 절차 준수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할 때 소득세 20퍼센트와 주민세 2퍼센트가 부과돼 연말정산 때 공제받는 금액 이상으로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규정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정부는 서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생활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부모니터단과 일반 국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2백개가 넘는 우수 제안이 정책 과제로 발굴됐다.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1백39만명에게 7백11억원 환급), 양성 평등에 어긋나는 분양권 청약제 개선(부부 간 분양권 지분 증여 허용) 등이 대표적인 성과다. 아울러 ▲저소득층 유료방송 요금감면 절차 개선(방송통신위원회) ▲저소득층 재난취약지구 안전시설 개선 사업 확대(소방방재청) 등도 공모를 거쳐 과제로 확정돼 현재 관련 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다. G

글 · 유재영 기자

홀몸노인·저소득층이 건강한 대한민국

60세 이상 5만6천명 치매 치료비 지원

아플 때만큼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간절하게 그리울 때가 없다. 정부는 아파도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서민들을 보듬어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각종 의료·복지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애야,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구나."

4년 전 김수연(가명·55) 씨는 놀란 가슴을 부여잡았다. 시골에 혼자 사시던 어머니 이정순(가명·74) 씨가 읍내 파출소에서 "집에 가고 싶은데 길을 모르겠다"며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자식들을 키워온 어머니는 그 일이 있은 뒤 상태가 더 심각해졌다. 결국 집으로 모셨지만 증세는 호전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사고로 남편을 잃은 김 씨는 치료비 걱정에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다 올해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매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어머니와 함께 보건소를 찾았다. 결과는 예상대로 치매였다. 더 자세한 진단을 위해 노인 정신 종합검진, 가까운 병원과 연계한 CT촬



일러스트 · 김영민

영과 혈액 검진을 받았는데 모두 무료였다. 김 씨는 "보건소 상담사들의 배려로 동네 근처 주간보호센터에서 어머니를 보살피고 있다"며 "지난 4월부터는 치매 치료관리비까지 지원해줘 어머니의 건강을 챙기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령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10년 후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치매 노인 수는 44만5천여 명. 그러나 치매 진료를 받은 사람은 실제 치매 환자의 약 3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 정부는 치매 조기 치료만 확산돼도 취약계층인 노인 건강을 제대로 보살피고 가족의 부담도 덜 수 있다고 보고 올해부터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전국 2백53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저소득 치매 노인의 치료관리비를 덜어주기 위한 제도를 도입했다. 가구 평균 소득 50퍼센트(4인 가족 기준 월소득 1백95만 6천원)에 해당하는 60세 이상 약 5만6천명에게 약제비, 진료비 등의 본인 부담금을 매월 3만원 상한으로 지급한다. 이 밖에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 노인서비스가 통합돼 2만6천7백명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65세 이상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체계적으로 운영돼 재가시설이나 요양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건강과 복지는 최우선 과제로 대두된다. 특히 경제능력이 부족한 노인과 장애인 등의 소외계층에겐 의료나 복지 혜택이 절실하다. 정부는 의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건강 취약계층을 위해 올해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심장·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 5%로 경감

이처럼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건강과 복지는 최우선 과제로 대두된다. 특히 경제능력이 부족한 노인과 장애인 등의 소외계층에겐 의료나 복지 혜택이 절실한 실정. 정부는 의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건강 취약계층을 위해 올해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헬스 코디네이터를 통해 저소득층 등의 영양, 구강, 비만관리 등 개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건강포인트 제도 등을 도입해 지속적으로 건강에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또한 서민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건강보험 혜택도 늘렸다. 사망률이 높은 심장·뇌혈관질환 본인 부담률을 종전의 10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경감시켰고,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 화상 본인 부담률을 20~60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인하했다.

저소득 근로 빈곤층을 위해서는 다양한 의료 혜택뿐 아니라 생활 안정과 위험 보장을 돕는 제도도 마련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고, 본인 저축에 따라 민간 매칭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벌이고 있다. 취업 수급자 중 지난 3개월간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70퍼센트를 넘으면 지원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무배당 만원의 행복보험'으로 소액 서민보험을 지원한다. 가계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백50퍼센트 이하인 가정 약 3백68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상해사망 보험금, 입원의료비 보장 등의 연간 보험료 3만5천원 중 1만원만 개인이 부담하면 된다.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한 방안들도 마련됐다.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가사활동 지원, 방문 간호, 방문 목욕 등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2차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뇌병변, 자폐증 등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돕는 사업은 기존의 1만8천명에서 3만7천명으로 대폭 확대돼 시행되고 있다.

오는 7월에는 근로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생계 보장을 돕는 기초장애연금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강혜선 주무관은 "2008년 국민연금제도의 장애연금 수급자가 8.4퍼센트에 불과할 만큼 그간 중증 장애인들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1, 2급 장애인 및 3급 장애에 해당하는 중증·복합 장애를 지닌 장애인 33만명을 대상으로 9만~15만원의 연금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

글 · 김민지 기자

건강보험 확대 내용

구분	내용	시행 시기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본인 부담 경감	암과 더불어 대표적 중증 질환인 심장·뇌혈관질환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5퍼센트로 경감	2010년 1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종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2010년 4월
중증 화상 본인 부담 경감	중증 화상을 중증질환군에 포함해 입원 및 외래 본인 부담률을 5퍼센트로 경감	2010년 7월
희귀·난치 치료제 급여 확대	B형간염 치료제 : 급여기간 제한 삭제 및 제픽스 내성 시 헵세라정과 병용 투여기간 삭제 TNF-α 억제제 : 급여기간 제한 삭제 및 중증 건선급여 인정 에리스로포이에틴 주사제 : 급여대상 확대	2010년 10월
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및 소모품 급여 전환	전동스쿠터, 휠체어 : 심장 · 호흡기장애 급여 확대 소모품 : 배터리 보험 적용	2010년 10월



조영철 기자

110콜센터 전문상담사 임민정 씨는 하루 종일 수십 명의 민원인들을 응대하면서도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일러주는 길잡이가 될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국민 수호천사 ☎110**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도움 청할 곳이 없다면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0콜센터, 국민신문고, 이동신문고 등을 운영하며 국민들의 크고 작은 불편사항을 해결해주고 있다.

"홀몸노인이 수화기만 들면 전화가 걸리는 전화기가 있습니까? 뉴스에서 봤는데 전화기만 들면 자동으로 연결돼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는 외국인 친구가 부당한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난해 가을에 사채를 썼어요. 원금 1천6백만원을 빌리고 이자만 4천만원 넘게 지불했습니다. 그런데도 원금을 갚지 않는다고 매일처럼 전화해서 심한 욕을 합니다. 가게로 찾아와 협박도 하고요. 제가 여기로 전화한 걸 알면 매장당할 수도 있어요."

하루에만 6천 통.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부 대표 민원전화 110콜센터엔 이처럼 갖가지 민원을 호소하는 전화벨이 끊이지 않는다. 110콜센터에 이처럼 다양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것은 3백17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업무를 통합 상담 안내하는 '정부 대표' 콜센터이기 때문이다.

317개 모든 정부 기관 통합 콜센터 '110'

"연말정산, 여권 발급처럼 자주 물어보는 민원은 바로 해결해드릴 수 있는데, 사연이 길어지는 복잡한 민원들은 그렇지 못해요. 일단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귀 기울여 들은 뒤 해당 부처나 과에 문의해 다시 연락을 드리죠."

2007년 110콜센터 개소 때부터 일해온 전문상담사 임민정(28) 씨는 하루 9시간씩 수십 명의 민원인들을 응대하면서도 지

친 내색이 없다. 오히려 국민의 도우미가 됐다는 생각에 자부심이 크다.

"최근 제 아버지 또래의 민원인이 2년 전 받지 못한 임금 체불 문제로 문의하신 게 생각나네요. '계속 당하고 있는 것만 같고 내가 무지해서 알아보지도 못해 정말 답답했는데 열심히 들어주고, 또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줘서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1백16명의 110콜센터 전문상담사들은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상황을 파악한 후 민원인에게 가장 적합한 정부 부처 및 해당 기관으로 여러 번의 중계를 거친 뒤 해결책을 찾아낸다.

임 씨는 "개개인의 서로 다른 상황에 맞춰 이를 서민정책과 연결하는 통로가 부족하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110콜센터는 이런 서민과 정부를 이어주는 '소통의 징검다리' 구실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학교 앞 신호등이 고장 났다'는 초등학생부터 '무료 양로원을 소개해달라'는 82세 홀몸노인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난 3년간 전국에서 4백90만명이 110콜센터에 생활 민원과 정부 업무에 대해 문의했다. 정책 제안이나 제도 개선 건의도 많다. '게임 사이트에서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매매하는 일은 불법을 부추기는 행위이므로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 등 귀담아 들을 만한 정책 제안도 적지 않다.

범정부 온라인 민원접수 창구는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안효수 기획담당관은 "주민등록증 제3자 교부 시 문자메시지 통보,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제안된 내용 중 일부는 제도 개선 참고 항목으로 채택돼 세부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국민들의 작은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는 '국민신문고'도 빼놓을 수 없다. 범정부 온라인 민원접수 창구로 불리는 국민신문고는 우리나라 모든 행정기관의 민원 시스템이 통합 연계된 홈페이지로 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 국민 제안, 정책토론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4월 말 현재 3만5천5백6건의 신청 민원 중 32.9퍼센트가 국민 제안으로 집계됐다. 그중 2백13건의 제안이 채택돼 정책화 단계를 밟고 있다.

국민들의 불편함을 직접 찾아가 해결하는 이동신문고의 발걸음도 더욱 바빠졌다. 지난해 28개 지역에서 실시돼 2백70여 건의 민원 접수와 2백40여 건의 현장 합의, 1천여 건의 상담 안내 등 총 1천5백 건의 상담 실적을 거뒀다. 올해 1월 전북 익산, 김제, 진안을 시작으로 지난 4월 강원 횡성, 태백, 정선, 영월에 이르기까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민원 해결 사례는 2004년 기능 조정으로 폐쇄된 KBS 영월방송국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지 중재로 지역 주민들의 문화활동과 휴식 공간으로 거듭나게 된 것. KBS 영월방송국은 영화 〈라디오스타〉 촬영지로 널리 알려졌지만 그간 영월군청과 KBS 간의 의견 차이로 폐쇄 이후 마땅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방치돼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이재오 위원장(오른쪽)은 1일 1현장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4월 경기 시흥시의 폐유정제업체인 한일정유를 방문했다.

110 콜센터에서 6가지 서비스 다 누리세요!

☎ **전화 민원 해피콜(Happy Call) 서비스** 기관과 연결해준 민원의 처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은 개선해준다.

☎ **예약 민원 콜백(Call Back) 서비스** 심야, 공휴일, 기관 업무시간 외에 문의한 경우 근무일에 민원인에게 전화를 해 상담해준다.

☎ **문자 상담 서비스** 민원인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문의 내용을 보내면 상담사가 문자메시지로 신속하게 문의 결과를 회신해준다.

☎ **수화 상담 서비스** 인터넷 영상전화로 전화하면 전문 수화상담사가 직접 상담해준다.

☎ **예약 상담 서비스** 110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상담 시간과 내용을 예약하면 예약 시간에 수화상담사가 직접 상담해준다.

☎ **외국어 상담 서비스** 영어, 일어, 베트남어 등 20여 개 언어로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 시간 : 평일 오전 8시~오후 9시 /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현장 행정활동을 주축으로 하루 한 곳 민원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1일 1현장' 원칙도 실천하고 있다. 최근 철도와 방음벽으로 30년간 갇혀 있던 전북 전주의 행치마을에 통행교량을 설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는 1일 1현장은 올해 간부 직원의 현장 확인을 5백 회 이상 늘려 국민의 고충과 불합리한 제도를 바꿔나갈 예정이다. G

글 · 김민지 기자

110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 110.go.kr
국민신문고 epeople.go.kr
국민권익위원회 acrc.go.kr

홍준표 의원이 말하는 친서민정책

“서민 입장에 서야 진정한 서민정책”

절실했다. 가난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일념.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가산을 모두 날린 뒤부터 2인분의 식사를 여섯 식구가 나눠 먹는 현실이 지긋지긋했다. 아버지를 원망한 적은 없지만 열아홉 나이에 집을 나왔다. 단돈 1만4천원을 들고 대구를 떠나 서울행.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다. 국회의원 홍준표에게 ‘서민’은 마치 고향의 품 같은 것이다.

15대부터 내리 4선을 한 국회의원이지만, 여전히 서민적 이미지를 풍기는 홍준표(56) 의원을 5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홍 의원은 서민정책에 관한 한 여당의 정체성을 다소 흔들어대는 한이 있더라도 거리낌 없이 소신을 펼쳐온 인물이다. 17대 국회 때는 토지 소유권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갖고 건물만 일반에 분양해 아파트 값을 낮추는 ‘반값 아파트’ 법안을 발의했고, 이중국적 보유 남성의 병역회피를 막는 국적법과 재외동포법 개정도 이끌어냈다. 지난 4월에는 사회취약계층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자는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제가 아주 밑바닥에서 살아봤으니 서민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서민들을 위해 그저 시늉만 하는 것은 제 스스로 용납이 안 돼요.”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친서민 중도실용’을 임기 중반 이후 국정 운영의 최우선 어젠다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힌 뒤 정부 각 부처도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국무총리실이 2009년 7월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서민생활 지원대책’의 이행 여부를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따른 일부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홍 의원은 ‘서민생활 지원대책’의 취지와 방향에는 분명하게 공감했다. 그러나 세부적인 제도의 선택과 운영 면에선 다소 아쉬움을 나타냈다.

서민들에 동질감 갖고 발상 전환해야

“정부는 미소금융제도, 보금자리주택, 든든학자금 이 세 가지를 친서민정책의 중심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내 집 갖고, 내 자식 잘 키우면 거기서 꿈을 얻습니다. 그런 면에서 취지에는 공감해요.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서민정책의 ‘일대 개선’이라고 보기엔 미흡합니다. 서민들에게 심정적 동질감을 갖고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

그는 우선 미소금융제도의 접근성을 강화하려면 은행권 스스로의 혁신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민들과 심정적 동질감을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정부의 서민생활 지원대책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은행권의) 도덕적 해이가 아직도 심각합니다. 지금까지 은행은 부도가 나면 국민 세금인 공적 자금으로 살아났죠. 그런데도 아직 사회 기여에 소홀하고 자사 이익의 극대화에만 집중합니다. 미국은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다시 관치금융으로 돌아섰어요.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앞으로 국내 은행들도 대출 총액의 30~40퍼센트는 서민 대출로 돌릴 수 있도록 (법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금리도 수신금리와 연동해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은행 이익의 10~20퍼센트도 서민 대출에 투입돼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6월 중 발의할 계획이에요."

홍 의원은 지난해 9월 첫 분양(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과 경기 고양 원흥, 하남 미사 등)을 시행한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투기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국무총리실도 3월 보금자리주택의 주요 성과를 평가하면서 주택 건설 시 투기 단속 강화를 최우선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보금자리주택은 '로또 주택'이라는 말이 나돌지 않았습니까. 과연 나중에 집값이 안 오를까요? 수도권에서만큼은 보금자리주택이 주택정책의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반값 아파트' 법안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반값 아파트 법안은 지난해 4월 특별법이 제정돼 그해 10월 시행령이 통과됐으나 아직 성과는 없다.

등록금 차등제 도입해 교육 기회 줘야

"'반값 아파트'는 2백50퍼센트 이상의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어 임대료가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이라도 평당 6백만원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어요. 현재 강남은 평당 4천만원도 넘지 않습니까? '반값'이 아니라 '8분의 1값'이네요. 33평이면 아파트 건물 가격이 2억원이 안 됩니다. 여기에 토지 임대료로 월 30만원을 낸다고 하면 1년에 3백60만원, 40년을 임대해 거주한다고 하면 1억5천만원입니다. 모두 해서 3억5천만~4억원이면 강남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돈을 월세 등 여러 방법으로 나눠 낼 수 있고, 재건축 권한도 가질 수 있어요. 청약 조건도 제한하고 정말 천신만고 끝에 이끌어낸 법안인데 아쉽습니다. 서민들 처지에선 집 걱정 없이 자녀 교육에 전념하고 문화생활도 여유 있게 즐길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반값 아파트 추진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뭘까. 이 질문에는 "홍준표 정책이니까"라는 재치 있는 농담이 되돌아왔다.

홍 의원은 대학 학자금 지원 대출이자가 높다는 지적도 했다. 지난해 2학기 학자금 대출이자는 1학기 7.3퍼센트에서 5.8퍼센트로 인하됐지만,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 수치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홍 의원은 아예 동료의원 62명과 함께 기초수급 대상자와 차상위계층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일반 학생은 부모의 경제 사정에 따라 등록금을 낸다.



홍준표 의원은 자신이 발의해 지난해 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령까지 통과된 '반값 아파트' 법안이 실행되고 있지 않는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2007년 '반값 아파트의 꿈은 반드시 이뤄진다'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홍 의원.

"이 대통령처럼 제가 아주 밑바닥에서 살아봤으니 어려움을 잘 압니다. 친서민정책의 실질적 혜택은 언제나 서민과 소외계층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인생 대역전의 기회는 교육에서밖에 찾을 수 없는데, 취약계층의 자녀들은 양질의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해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어요. 등록금 차등제는 이미 미국 주요 명문대학들도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법안에 국가의 역할이 없다' '포퓰리즘 법안이다'라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정부는 나름 예산을 늘려 학자금 지원을 하고, 민간에서도 고소득자들이 서민들의 어려움을 분담해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자는 취지입니다."

최근 여야가 정면충돌을 불러온 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논란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은 서민들을 위해 하는 것"이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무상급식 전면 실시는 잘사는 집 자녀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므로 차라리 그럴 예산이 있으면 영·유아 보육사업에 투입하는 게 낫다는 것.

홍 의원은 각 부처 장관들이 소신을 갖고 대통령의 친서민정책 확대에 나서주기를 희망했다. 자신도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계속 힘을 보태겠다고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처럼 저도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실질적 혜택은 언제나 서민과 소외계층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G

글·유재영 기자 / 사진·조영철 기자



이번 대회 개막식에는 김덕수, 안숙선, 국수호 등 문화계 거장들이 세계 최초의 4D 홀로그램 공연 '서울 무지개'를 선보인다.

세계 최대 '문화올림픽'이 열린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5월 25일부터 나흘간 서울 개최

세계 최대의 '문화 올림픽'으로 꼽히는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가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서는 한국이 중심이 돼 세계 문화예술교육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담은 '서울 어젠다'가 채택될 전망이다.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모든 사람은 예술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난해 말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준비를 위한 유럽 심포지엄에서 세계 각국 참가자 50여 명이 공동으로 작성한 기고문의 첫머리에 나오는 선언이다.

오는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는 이 같은 문화예술교육 권리를 재확인하고, 한 단계 진전된 구체적 실천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대회 마지막 날 문화예술교육의 실천 전략을 담은 '서울 어젠다'가 예정대로 공동 채택될 경우 이 어젠다는 전 세계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가이드라인으로 명명될 수 있다. 즉 지구온난화 저지를 위한 세계적 합의로 교토의정서가 있다면, 세계 문화예술교육의 가이드라인으로 서울 어젠다가 주목받게 되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유네스코가 공동 주최하는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는 2006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첫 대회에 이어 4년 만에 열리는 2회 대회다. 첫 대회에서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면, 이번 대회에선 각국의 성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 방식이 심층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서구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쟁점을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어젠다' 채택되면 세계 문화예술교육 가이드라인 될 것

대회 규모는 가히 '문화 올림픽'의 위상에 걸맞다. 대회 참가국이 1백90여 개국이며, 참가자는 해외 인사 8백여 명을 포함해 2천여 명에 이른다. 해외 참가자 중에는 각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20여 개국 고위급 각료가 다수 포함돼 있다. 필리핀, 태국, 토고, 베트남, 몰디브 등의 장차관급 인사 외에도 오스트리아, 스위스,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의

국장급 인사와 주한 대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대회 첫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한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사례에 대한 기조발제를 들은 후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정부의 선도적 역할'이라는 주제로 고위급 원탁회의를 열어 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이나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대회 기간 중 선보일 국내외 문화예술계 저명인사들의 기조연설과 기조발제도 주목할 만하다. 먼저 5월 25일엔 미국의 루트번스타인 부부가 이번 세계대회의 정신과 의미를 부각하는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우리나라에는 베스트셀러 〈생각의 탄생〉의 공동 저자로 널리 알려진 루트번스타인 부부는 과학과 예술의 창조성을 연구한 공로로 맥아더 펠로십을 받는 등 창조성 분야의 석학으로 꼽히고 있다.

루트번스타인 부부·겡가네 등 문화예술 저명인사 참석

대회 이틀째 '예술교육을 통한 문화 다양성과 사회적 통합'을 주제로 연설하는 장 피에르 겡가네 씨는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문화부 장관과 고등교육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아프리카 구전문학 전통을 현대 연극에 접목한 '사회참여 연극'으로 촉망받는 극작가이기도 하다.

같은 날 기조발제를 하는 김희경 미국 U.C.산타크루즈 음대 교수는 동서양 음악과 무용 등을 접목한 멀티미디어 작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작곡가다. 대회 사흘째에는 쿠바 교육부의 예술교육 자문위원인 라몽 카브레라와 함께 오스트리아 교육정책가인 미하엘 빔머가 예술교육과 정책을 주제로 연설한다.

국내외 문화예술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25개 워크숍은 문화예술교육의 실천 전략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리다. 워크숍 주제는 ▲학교 안과 밖의 예술교육 ▲문화 디지털 미디어, 대중문화와 예술교육 ▲예술교육을 통한 치유와 회복 ▲세계 어린이들 그림 속의 창의성 등이며, 틀에 얽매이지 않는 창의적인 토론을 할 예정이다. 대회 마지막 워크숍에서는 예술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며 마무리를 짓는다.

한편 개막식과 전시 등 대회 부대 행사는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결합된 한국 문화예술교육의 창조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개막식에서는 김덕수, 안숙선, 국수호 등 한국 문화계 거장들이 의기투합해 '서울 무지개'라는 제목으로 세계 최초의 4D 홀로그램 공연을 펼칠 계획이다.

행사장에는 세계 각국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글자로 담은 티셔츠 2천10개를 내건 형형색색 빨래터를 연출하고, 다듬이 소리로 흥을 돋운다. 한국의 빨래문화와 예술교육을 통한 영혼의 정화(거듭남)를 만나게 한다는 전시 콘셉트다.

문화예술교육이 소외계층에게도 해당하는 권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연도 펼쳐진다. 대회 둘째 날 펼쳐질 뉴욕필하모닉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개요

분류	내용	
일정	5월 25일(화)~28일(금) 4일간 (5월 24일은 사전 개막 행사로 국제자문회의 개최)	
장소	서울 삼성동 코엑스	
특성	2006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1차 대회 성과를 계승하고, 구체적 실천 전략 마련(가칭 '서울 어젠다' 채택 협상 중)	
참가 규모	1백90여 개국, 2천여 명(해외 8백여 명)	
주요 참석자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 루트번스타인 부부(《생각의 탄생》 저자) 기조연설. 장 피에르 겡가네(부르키나파소 전 문화부 장관), 라몽 카브레나(쿠바 고등예술학교 교수), 김희경(작곡가), 미하엘 빔머(오스트리아 교육정책가) 등 기조발제	
주요 행사	분과회의	예술교육 가치를 재조명하는 25개 워크숍
	특별회의	20여 개국 고위급 원탁회의, 5대 권역 지역회의, 국제 NGO포럼, 국제청년포럼, '세계문화 간 화해' 회의
	공연	4D 홀로그램 사물놀이, 뉴욕필하모닉 공연, 한·아세안 오케스트라 공연 등
	전시	세계청소년미술전, 이를리 레알(브라질 장애인 화가)의 예술 치유와 회복전, 뮤라미드전 등
부대 행사	투어	해외 참가자 2백50여 명 대상 한국문화 체험여행(이천 도자기체험, 창덕궁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투어 등)



아트마일스

뮤라미드는 1백25개국, 50만명 이상이 참가해 그린 그림을 피라미드 모양으로 연출한 것이다. 이번 전시물은 올가을 이집트 카이로 전시를 앞둔 축소판이다.

오케스트라 공연에서는 한국 보육원 아이들이 작곡한 곡들이 연주된다. 보육원에 사는 초등학생 8명이 6일간 예술강사들의 워크숍을 통해 직접 작곡한 곡들이다.

주요 전시로는 1층에서 세계청소년미술전, 2층에서 브라질 장애인 화가 아를리 레알의 작품전, 3층에서 올 10월에 이집트 카이로에 구현될 작품 〈뮤라미드〉의 축소판이 선보인다. 이번 대회 개·폐막식과 일부 워크숍은 온라인으로 사전등록을 한 경우 참관할 수 있으며, 대회장 안팎의 설치 전시 등은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G

글 · 최은숙 기자

대회 홈페이지 www.artsedu2010.kr
추진기획단 Tel 02-2075-6308

"문화는 교육이다"

문화예술교육으로 삶의 희망 키우는 사람들

아이들이 달라졌다. 노인들이 즐거워한다. 총을 들었던 소년들은 악기를 잡았다. 살아볼 만하다는 희망과 자신감이 학교와 사회에서 희망 바이러스처럼 퍼진다. 문화예술교육으로 삶과 사회를 바꾼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진다.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산촌마을 할머니 할아버지, 영화배우 되다"



화투를 치는 할머니들을 촬영할 때였다.

"아니, 놀면서 한다더만 다들 돈 따려고 눈이 뻘게져 있구만, 뭐."

옆에서 다른 할머니가 거들었다.

"눈이 빨갛긴 뭐이 빨개. 화투 등짝이 빨갛지."

대본에 없는 즉흥 대사가 튀어나왔다. 영화를 보던 냇강마을 주민들이 와락 웃음을 터뜨린다. 영화가 상영되는 90분 동안 감초처럼 등장하는 기발한 대사들에선 노인들의 무한한 상상력이 묻어난다.

지난해 12월 22일 강원 인제군 북면 월학리 냇강마을에서 열린 영화 〈살아가는 기적〉 시사회에는 냇강마을 주민 1백여 명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70, 80대 노인들을 주축으로 영화배우로 출연한 냇강마을 주민들이다. 이날 시사회에는 할머니들의 '다듬이 난타공연'도 펼쳐졌다. 70세 이상 주민들이 마을의 어제와 오늘을 담아 출간한 〈마을 자서전〉의 출판 기념회도 열렸다.

영화 〈살아가는 기적〉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의 성과물이다. 농촌체험마을과 같은 행사에서도 뒷전이던 노인들을 주연배우로 발탁해 산촌마을의 삶을 다큐멘터리에 담기로 한 것이다. '마을 영화' 전문 독립영화 제작사 '창시'가 제작을 맡고 신지승(47), 이은경(41) 부부 감독이 연출했다.

2009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촬영한 이 영화에는 주민들이 6·25전쟁부터 현재까지 겪은 삶의 아픔이 담담하게 들어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주민들은 삶의 '관객'에서 '주인공'으로 등극하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마을 영화 〈살아가는 기적〉 촬영 현장에선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발한 즉흥 대사로 웃음보가 터지곤 했다.

하트-하트 오케스트라

"음악으로 장애인 인식 바꿀 거예요"

스승의 날을 이틀 앞둔 지난 5월 13일 오후 4시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재단 지하 1층 연습실이 왁자하다. 하트-하트 오케스트라의 지휘를 맡은 박성호 씨 주변을 여러 단원들이 에워쌌다.

그동안 23명의 발달장애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준 선생님에게 장미꽃 한 송이씩 드리는 모습에 선생님도, 학부모도, 사회복지사도 눈시울이 젖어들었다.

하트-하트 오케스트라는 2006년 3월 우리나라 최초로 창단된 발달장애아들의 악단이다. 관악단 '하트-하트 윈드 오케스트라'가 출범한 지 4년째. 올해는 현악기를 다루는 아이들을 모아 '하트-하트 심포니'도 창단했다.

발달장애아는 영화 〈말아톤〉의 주인공 초원이처럼 신체발달은 정상이지만, 지적 능력은 어른이 돼도 3~6세에 불과하다. 사람과 눈을 맞추고 대화하는 걸 힘들어한다. 악보를 읽고 한 곡을 연주하기 위해 얼마만한 연습이 필요할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하트-하트 오케스트라는 그동안 국내 연주회는 물론 해외 순회공연까지 너끈하게 치렀다. 2006년 첫해 3회 공연, 2007년 14회 공연, 2008년 18회 공연 등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4월 중순에 다녀온 중국 3개 도시 순회공연에서는 단원들이 한류 스타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다.

하트-하트 오케스트라 단원은 모두 23명. 주로 10대지만 창단 때부터 활동한 은성호 씨 같은 27세 만년 소년도 있다. 클라리넷 주자인 은 씨는 백석예술대에서 음악을 전공했다. 이들은 '서번트 증후군'을 가진 장애인과 달리 음악 영재들이 아니다.

이은실 사회복지사는 "발달장애아들이 음악을 통해 사회에 적응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자는 게 오케스트라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G

글 · 최은숙 기자



조영철 기자

하트-하트 오케스트라(지휘자 박성호)는 2006년 국내 최초로 창단된 발달장애아들의 악단이다.



유니버설 뮤직 코리아

구스타보 두다멜은 엘 시스테마 덕분에 차세대 유망 지휘자로 성장했다.

총을 내리고 악기를 들었다 음악은 그들의 삶 자체가 되었다

베네수엘라 음악교육 운동 '엘 시스테마'

"다리에 총상을 입어서 학교에 갈 수 없었어요. 더 고통스러운 건 그날 오케스트라에 빠져야 한다는 거였어요."

영화 속 10대 소녀가 웃으며 말한다. 곧이어 다른 아이들도 왜 오케스트라가 힘든 삶을 희망으로 바꿨는지를 증언했다. 이 영화 〈엘 시스테마(El Sistema)〉는 실제 스토리다. 마약과 총기, 범죄가 난무하는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의 빈민가에서 1975년 시작한 음악교육 운동 '엘 시스테마(시스템의 스페인어)'는 전 세계에서 예술교육이 사람과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말할 때 맨 앞에 내세우는 모델이다.

엘 시스테마는 베네수엘라 정부와 국제기구, 민간의 지원을 받는 음악교육 재단이다. 베네수엘라 경제학자이자 지휘자, 작곡가인 호네 안토니오 아브레우가 빈민가 아이들 11명에게 악기를 나눠주며 허름한 차고에서 시작한 음악혁명의 성과는 눈부시다.

현재 수백 개의 유소년 오케스트라가 활동하고 있으며, '누클레오'라는 음악센터 2백70개 등 전국 음악교육 네트워크가 탄탄하게 짜여 있다. 현재 약 30만명의 베네수엘라 어린이와 청소년이 그 혜택을 받고 있다. 올해 수혜자를 50만명까지 늘리겠다는 게 목표다.

덕분에 세계적인 음악가도 여럿 배출했다. 17세에 최연소로 베를린 필하모닉에 합류한 더블베이스 주자 에딕슨 루이스(24), 지난해 미국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음악감독으로 취임해 화제가 된 젊은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28)이 그들이다.

특히 두다멜은 세계적인 지휘자 클라우디오 아바도에게서 차세대 최고 지휘자로 지목받기도 했다. 두다멜은 말한다. "음악은 우리 삶을 바꿔놓았고, 이제 음악은 우리 삶 자체다"라고.

지난해 말 카라카스를 찾아가 엘 시스테마 교육 현장을 돌아본 유명 첼리스트 줄리언 로이드 웨버는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에 이렇게 기고했다.

"엘 시스테마는 기적을 만들었다. 소년, 소녀들이 총 대신 악기를 든 것이다. 이 기적의 열쇠는 엘 시스테마가 단순한 음악교육이 아니라 가슴으로 음악을 함께하는 '사회 행동 프로젝트'라는 데 있다. 엘 시스테마는 독주가 아닌 합주(하모니)를 추구한다. 하모니는 당장 뛰어난 뮤지션을 배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동체 정신은 남는다."

창시자 아브레우는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음악으로 사람들을 바꾸고, 사회구조를 바꿔 베네수엘라에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하겠다는 것이 그의 꿈이다.

한국인의 '신명 유전자'를 기른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국 어디에 있어도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뿌리내리고 있다. 정부는 올해 '더 큰 문화국가,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학교 안과 학교 밖 지역사회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문화 유전자는 '신명문화'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24절기 삶과 예술이 공존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6·25전쟁 후 학교교육 시스템은 생산성과 관련이 없는 예술교육을 한국인의 삶에서 분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신명문화를 회복하기 위해 창의성을 살리는 문화예술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이대영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이 영국 정부 초청으로 '창의적 파트너십' 국제회의에 참가해 '한국의 창의교육'이란 주제로 발표한 내용이다. 이 원장은 이날 한국 정부의 앞서가는 문화예술교육 정책 현황과 비전에 대해 각국 문화예술 관계자들에게서 많은 질문을 받았다.

한국은 해외 각국이 모델로 삼고 싶어 하는 정부 주도의 문화예술교육 선도국이다. 정부는 2005년 문화예술교육 특별법을 제정하고, 그 전담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설립해 전국에 소외되는 지역과 계층이 없도록 배려하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더 큰 문화국가, 품격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43억원 늘린 6백55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일반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요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학교 중심의 학교문화예술교육 △학교 밖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나뉜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삼육재활센터 어린이들이 지난해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지원받아 연극 공연을 했다.

학교문화예술교육
정명훈·강수진 등 세계적 거장 '명예교사' 등 인기

학교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교육의 출발점이다. '예술꽃 씨앗학교' '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 '유명인 명예교사 파견' 등이 그 주요 사업이다.

'예술꽃 씨앗학교'는 문화예술교육 운영 실적이 우수한 소규모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1억원씩 4년 동안 문화예술교육을 집중 지원하는 장기 프로젝트다. 2008년 부산 금성초등학교 등 10개 초등학교가 선정됐으며, 예술강사를 파견하는 등 학교예술교육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예술강사는 국악, 연극, 영화, 만화, 공예, 사진 등 문화예술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 올해는 전국 5천4백36개 초중고교에 예술강사 4천1백56명을 파견하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19퍼센트가량 늘어난 수치다.

'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는 각 학교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인 예술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역별, 과제별, 학교별 특성에 따라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07년 전국 39개교를 시작으로 그 실적이 검증되어 2009년엔 2백 개 학교를 선정하는 등 대상 학교를 늘리고 있다. 특히 문화 소외계층이 많은 지역의 학교와 특수학교를 우선 선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 향유권 향상에 기여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휘자 정명훈, 발레리나 강수진, 국악인 김덕수 등 세계적 거장들이 학교를 방문해 공연을 하고 강의도 들려주는 명예교사 파견 사업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17명의 저명 예술인이 학교와 복지기관 등 2백90곳에서 공연과 강의를 진행해 1만7천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지역 향토 예술인 등을 합쳐 명예교사를 1백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문화예술교육
복지시설·장애인 시설 등 소외층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소외 아동·청소년 대상 방과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어르신 문화학교' '문화예술지원 프로젝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을 4년간 집중 지원하는 '예술꽃 씨앗학교'의 시범 모델인 전남 여수북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오케스트라 연습을 하고 있다.

> **소외 청소년 대상 방과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대상을 저소득층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노인 대상 어르신 문화학교 사업은 노인들이 스스로 생산적인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인시설, 군부대, 교정시설 등 특수시설에도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트' '생활문화공동체' 등 문화 소외 해소와 지역 문화공동체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소외 아동·청소년 대상 방과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전국 복지시설, 임대아파트 등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예술교육을 지원한다. 지난해 전국 소외계층 아동과 청소년 1천3백여 명이 영화, 연극, 무용, 국악, 만화, 기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활동 지원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노인 대상 어르신 문화학교 사업은 노인들이 스스로 생산적인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사업에는 현재 전국 2백25개 문화원에서 4천7백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또 장애인시설, 군부대, 교정시설 등 특수시설에도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더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장애인복지관 49개 시설에 음악과 무용교육을 실시하며, 군 장병 대상 문화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 성인 교정시설과 소년원에서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예술교육 기회를 지원하는 '문화예술 지원 프로젝트'를 5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 프로그램 및 강사 인적 자원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인적 자원·시설 인프라를 연계한 이번 프로젝트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의 청소년 1천6백여 명이 대상이다.

이 사업의 주무 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한국청소년진흥센터는 영화, 연극, 국악,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등 활동영역별로 전국 1백여 개 운영기관과 프로그램을 선정해 이달부터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를 통해 공동체의식을 강화하는 생활문화공동체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문화공동체를 만들어 '살고 싶은 지역문화'를 만드는 사업이다. 지난해 임대아파트, 농산어촌, 서민주택 밀집지역이 생활문화공동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1만1천여 명의 문화예술 전문 인력이 81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G

글 · 김광숙(객원기자)

이어령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조직위원장

“‘창조적 상상력’으로 교육을 확 바꿔야”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이 돌아왔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 때 ‘굴렁쇠 소년’을 등장시켜 여백의 미를 선보였던 이 전 장관이 이번에는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조직위원장을 맡아 한국 문화예술교육의 신명을 첨단 디지털과 융합해 세계인들을 놀라게 할 ‘디지로그’ 축제를 총지휘한다.

“우리 민족은 생활 속에서 예술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다듬이 소리에 리듬을 익혔고, 병풍 속에서 아름다운 회화를 보고 자랐어요. 아가는 첫 돌상에 올려놓은 돈, 쌀, 책에서 조형물과 만나고 자기 운명까지 움켜쥐지 않았습니까. 처마 끝 풍경(風磬)은 또 어떻습니까. 바다에서 헤엄칠 물고기가 풍경에 매달려 하늘의 구름 속을 날아다녀요. 이만큼 상상력을 자극하는 예술교육이 또 어디 있습니까.”

지난 5월 13일 만난 이어령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조직위원장은 ‘소년’처럼 눈을 반짝였다. 5월 25일부터 나흘간 서울에서 열리는 2010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에서 한국인의 생활문화에 흐르는 예술교육의 ‘진주’를 캐내 첨단 디지털 기술을 입혀 세계인들에게 내놓을 구상에 신이 나 있기 때문이다. 대회는 디지털과 아날로그적 생명력을 불어넣을 ‘디지로그’ 축제 한마당이다.

이 위원장은 대회가 세계 최초의 4D 홀로그램 공연과 ‘빨래터’ 설치미술 등으로 세계인들을 놀라게 할 뿐 아니라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가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예술은 사회성을, 교육은 창의성을’이 이번 대회의 슬로건입니다. 예술은 사회 덕을 보고, 교육은 예술의 덕을 보자… 이런 뜻입니다. 알다시피 많은 예술가들이 소위 말하는 ‘범생’은 아니잖아요. 개성을 중시하다 보니 사회성과 보편성은 뒤떨어집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예술가를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가, 또 예술가들의 상상력과 꿈을 어떻게 사회의 원동력으로 녹일 것인가를 고민해야죠.

둘째는 이제 ‘교육도 튀어야 한다’는 테제입니다. 주입식 교육을 그만두고, 아이들이 가진 잠재력을 끄집어내 창조적 인간



5월 13일 안무가 국수호 씨가 스튜디오에서 개막식에 선보일 ‘서울 무지개’ 공연의 막바지 연습을 하고 있다. 디스트릭트

> **불경기가 되면 맨 먼저 예술교육 예산부터 줄이고, 예술행사에 쓰는 돈을 못마땅해하는 나라에서는 절대로 스티브 잡스가 못 나와요. 예술은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미술이나 음악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을 창조적 상상력으로 버무려 교육 패러다임을 바꿔야 가능합니다.**


정경택 기자

으로 기르자는 겁니다. 나라마다 문화나 예술교육 방식은 다르지만, 이런 고민은 전 세계가 공감할 밖에요.

문화예술교육이 왜 중요합니까.

애플 최고경영자(CEO)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아이패드로 전 세계를 제패하는 시대, 즉 '예술이 밥 먹여주는 시대'니까요. 불경기가 되면 맨 먼저 예술교육 예산부터 줄이고, 예술행사에 쓰는 돈을 못마땅해하는 나라에서는 절대로 스티브 잡스가 못 나와요.

예술은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고 가르치는 '팩트'에 머무는 저급한 리얼리즘이 아니라,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되고, 펭귄이 살 곳이 없어진다는 상상력이 마구 피어나는 창조적 인간을 길러내야죠. 미술, 음악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을 창조적 상상력으로 버무려 교육 패러다임을 바꿔야 가능합니다.

본회의장에 선보일 '빨래터' 설치미술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본회의장 자체가 예술교육의 축제마당이 될 겁니다. 관람객들은 입구부터 2천10벌의 티셔츠가 양편에 빨래처럼 널린 '빨래터'를 거쳐 무대로 향합니다. 전 세계 청년들이 좋아하는 'Dream'이니 'I♡NY'이니 하는 문구가 그 나라 글자로 찍힌 티셔츠는 단순한 의상이 아니라 '내 몸이 미디어'라는 청년문화를 표현하는 수단이죠.

그럼 왜 빨래터냐. 빨래터는 정화(카타르시스)의 장소를 상징합니다.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인간이 정화를 체험하고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비유예요. 대회 마지막 날에는 티셔츠를 기념품으로 경매하고 수익금을 아이티 난민들에게 기부하려고 합니다. 지진으로 찢어진 난민들의 티셔츠를 대신하는 거죠. 이렇게 여운이 남는 게 예술교육의 재미고 감동 아닙니까.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4D 홀로그램 공연이 궁금합니다.

제 인사말 순서부터가 홀로그램 공연입니다. 실물인지 가상인지 몰라 사람들이 어, 이상하다 할 겁니다. 다음 홀로그램 공연 제목은 '서울 무지개'입니다.

왜 무지개냐. 비가 오면 무지개가 생깁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진, 테러 때문에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마치 비가 무지개를 만들듯 세계인들의 눈물이 만들어내는 무지개를 형상화하자는 거죠. 가야금 반주에 따라 2천10가지 홀로그램 색깔로 하늘엔 새가 날고, 땅에는 꽃이 피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헤엄쳐 다닙니다.

아이티 지진 장면 영상이 뜨고 '그들은 신발을 잃었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시가 흐르다가 새가 춤을 추며 꽃이 되고, 물고기가 되는 '순환'을 보여줍니다. 아이티의 눈물방울이 꽃이 되고 새가 돼요. 고통이 아름다움으로 승화되는 것이 바로 감동이고 예술 아닙니까.

공연 마지막의 '화룡정점'은 비밀에 부쳐두죠. 이 공연을 위해 가야금 명인 황병기, 판소리 명창 안숙선, 사물놀이 김덕수, 안무가 국수호처럼 한국 최고의 인간문화재들이 모였습니다.

서울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에서 기대하는 성과는 무엇입니까.

G20 정상회의에 앞서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한국의 문화예술교육을 세계에 알릴 기회입니다. 나라 안팎에서 한국인의 마음과 머릿속에 흐르는 '문화의 광맥'에 관심을 갖게 되고, '창조교육'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회가 된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사람도 '봉 상스(Bon Sense·품위, 양식)'가 중요하듯 한 나라의 품격도 내놓을 만해야 하는데, 대회가 성공하면 자연히 국가의 품격도 올라가겠죠. G

글 · 최은숙 기자



정부가 신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엔지니어링산업 육성을 위해 대대적인 투자 확대를 선포했다. 사진은 삼성엔지니어링이 2008년 사우디아라비아에 건설한 50만 톤 규모의 폴리프로필렌 플랜트 설비.

석유 수입 등 20개 업종 진입규제 낮춘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엔지니어링산업 활성화 논의

정부가 엔지니어링산업 육성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아낌없는 투자로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을 세계 시장의 으뜸으로 키우겠다는 것. 또한 서비스, 독점 공공사업의 진입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 4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1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4월 28일)에선 먼저 엔지니어링산업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세계 엔지니어링 시장 규모는 2008년 현재 1천1백67억 달러(약 1백40조원)에 이른다. 연 평균 17퍼센트의 고성장이 지속되면서 시장은 점점 커질 추세. 특히 최근에는 중동, 중남미, 동남아 등 신흥시장의 설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 같은 대규모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0.4퍼센트에 불과하다. 그나마 상세설계, 시공 등 저수익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프로젝트 종합관리(PMC), 개념설계(FEED) 등 부가가치가 높은 영역에서는 기술경쟁력과 전문인력이 모자라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구매 및 시공 영역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기술개발 등 15대 전략 분야 투자 확대

이에 정부는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등 15대 전략 분야의 투자를 확대해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형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것. 정부는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2015년까지 1조원 규모(2010~15년 누적 지원)로 15대 전략 분야를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 미래 유망 분야 위주의 특화된 기술 분야에 집중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

술개발 사업자 선정 때 우선권을 부여한다.

정부는 우선 국내 기술력을 축적하기 위한 방안으로 'Engineering-Based Construction' 개념에 부합하는 ▲신재생(해상풍력, 탄소포집 및 저장(CCS)) ▲건설·플랜트 분야(초장대교량, LNG) 사업을 2011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20년까지 프로젝트 관리, 개념·기본설계 등 고부가가치 핵심 영역의 전문엔지니어 2천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요 공과대학원 중 2개를 우선 선정해 엔지니어링 전문대학원을 2011년 상반기까지 신설하고,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실무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재직자 현황 재교육 및 인턴십 프로그램을 확대해 2020년까지 실무형 현장인력 5만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요 전략시장별 현지지원 거점 확대 및 연계 강화를 통해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총괄 체계를 마련한다. 코트라, 해외건설협회 등 유관 기관은 현재 주요 거점지역으로 꼽히는 중동,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 올해까지 총 8개의 해외 수주지원센터를 구축한다. 이곳에는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의 전문가로 이뤄진 '엔지니어링산업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다.

진입규제 완화되는 20개 서비스산업 및 공적 독점 영역

과제별 조치사항	일정	소관 부처
LPG 수입업 등록요건 완화	2010. 12. 31까지	지식경제부
석유수입업 등록요건 완화	2010. 12. 31까지	지식경제부
LPG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의 지역제한 폐지	2011. 6. 30까지	지식경제부
석유제품공급자 증명제도 폐지	2010. 12. 31까지	지식경제부
경비업 허가요건 완화	2010. 12. 31까지	경찰청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완화	2010. 12. 31까지	문화체육관광부
농약수입업 등록요건 완화	2010. 12. 31까지	농림수산식품부
항공기 슬롯조정 참여사업자 확대	2010. 6. 30까지	국토해양부 (운항시각 조정업무 세부 운영지침 개정은 2011. 12. 31까지)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기준 완화	2010. 6. 30까지	국토해양부
외항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기준 완화	2010. 12. 31까지	국토해양부
도매시장법인 지정제 개선(법률 개정)	2011. 6. 30까지	농림수산식품부
의약품 분류제도 개선	2010. 12. 31까지	보건복지부
건설 기계 수급 조절 관련 제도 개선	2010. 6. 30까지	국토해양부
정밀안전진단 실시기관 확대	2011. 6. 30까지	국토해양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 확대	2010. 12. 31까지	보건복지부
농업기계화사업 위탁범위 확대	2011. 6. 30까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성적표지 검증업무 민간 개방	2012. 6. 30까지	환경부
건강기능식품영업자 교육기관 확대	2010. 6. 30까지	보건복지부
재활용사업공제조합 경쟁체제 도입	2011. 12. 31까지	환경부
농협의 군납우유 독점공급구조 개선	수급제도 정비 후	국방부

경비업 허가 완화 · 항공업 이착륙 시간 등 조정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보증한도 확대 및 전문 수출보험 상품 개발 등의 역량도 강화한다. 특히 수출입은행의 플랜트, 조선 등 수출 관련 대출지원 업무는 지난해 32조원에서 올해 38조원까지 늘어난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과 고급인재 양성을 유도하면서 2020년까지 총 20만 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제21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는 경쟁 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LPG 수입업, 경비업, 항공업 등 산업에 대해 진입 문턱을 낮춰 일자리를 늘리고, 정밀안전진단 등 공기업 독점 분야를 민간에 개방하는 등 20개 업종에 대한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SK가스와 E1 2개 회사가 독과점을 형성해온 액화석유가스(LPG) 수입업 분야의 등록요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 LPG 수입업 등록을 위해서는 연간 내수판매 계획량의 35일분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춰야 했다.

지식경제부는 저장시설의 공동 이용을 허용하고 정부가 비축하는 석유비축시설의 여유 공간에 대한 임대가능 기간을 연장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당장 5월부터 삼성토탈은 LPG 1백만 톤을 수입해 60만 톤은 자가 소비하고 40만 톤을 판매할 계획이다. LPG를 용기로 판매할 때 허가받은 시도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 지역제한도 없어진다. 지식경제부는 이런 조치들에 따라 기업의 경쟁이 촉진되고 LPG 판매가격 인하로 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경비업 허가요건도 완화된다. 지방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요건 중 자본금 요건의 경우 시설·호송경비는 1억원에서 5천만원, 특수경비는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며 교육장 구비 요건도 없어진다.

항공기 이착륙 시간(슬롯)조정 참여사업자도 확대된다. 그간 슬롯을 조정하는 스케줄협의회에 참여하는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으로 제한돼왔다. 국토해양부는 올 상반기 중 신규 항공사가 원하는 경우 스케줄협의회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시간대에 저가항공사를 이용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적 독점 영역도 축소된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고 있는 60개 시설물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하는 것이 그 예.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독점 수행하는 환경성적표지 검증 업무도 민간연구소 등에 개방한다. G

글 · 최유경(뉴데일리 기자)



동아DB

술잔에 뜬 저 달… 술인지 달인지

‘막걸리 월드컵 16강’ 전국 32종 막걸리 한자리에

우유처럼 뽀얀 빛깔, 한 모금 머금으면 입 안을 가득 채우는 구수한 맛, 그리고 달콤한 뒷맛. 대한민국 대표주 막걸리다. 찹쌀, 멥쌀, 밀가루 등을 찐 다음 누룩과 물을 섞어 발효시킨 전통의 술 막걸리가 요즘 무한변신을 꿈꾸고 있다. 인삼, 사과 등 지역 특산물과 결합해 다양한 맛을 빚어내면서 내외국인의 사랑을 함께 받는 곡주로 거듭나고 있는 것.

지난 5월 10일 서울 중구 필동 한국의 집에서는 전국 각지의 막걸리 32종이 한자리에 모였다. 남아공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며 ‘막걸리 월드컵 16강전’을 벌인 것이다. 전국 시도 주관으로 선발된 ‘지역대표’ 막걸리들은 주류 전문가, 외국인 등 20여 명의 심사위원과 시민들의 시음을 거친 끝에 살균막걸리 4종과 생막걸리 12종 등 ‘16강’을 가렸다.

막걸리 제조과정 시연과 체험행사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열렸다.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려든 곳은 막걸리 칵테일 시음 행사장. 특히 지난해 막걸리 엑스포 때 개발된 ‘향진이’ 막걸리 칵테일은 달콤새콤한 맛과 영롱한 에메랄드빛으로 막걸리 마니아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16강 막걸리는 남아공 월드컵 기간인 6월 11~13일 서울역 광장, 청계광장 등에서 열리는 막걸리 페스티벌 행사에서도 만날 수 있다. G

글 · 김민지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네 덕에 한잔 더"

막걸리 전용 잔 공모전 입상작 전시

이날 행사에는 지난 3월 '막걸리 전용 잔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 중 전문가들이 제작한 16점의 막걸리 전용 잔도 전시됐다. 그중 박영동(25) 씨와 박완수(25) 씨가 함께 디자인한 '호월배'가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태백의 '우인회숙'(友人會宿)이라는 시에서 착안해 '잔속에 달을 담는다'는 콘셉트로 만들어진 호월배는 잔 안쪽 일부를 볼록하게 만든 것이 특징. 잔에 막걸리를 가득 채우면 보름달이 뜬 것처럼 보이다가 잔을 비우면 달이 점점 기울면서 초승달로 변해가는 모습에 매료된다.









관람객들은 막걸리 제조과정 시연 1 행사를 통해 막걸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지난 4월 시도 주관으로 선발된 2 '지역대표' 막걸리 32종이 한자리에 모였다. 인삼, 산삼, 송이 등 지역 특산품을 이용해 만든 막걸리들이 많았다.

지난 3월 '막걸리 전용 잔 3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들. 막걸리 전용 잔에 막걸리를 따라 마시면 향취와 풍미가 더해진다.

30-30 향해 오늘도 추추~

MLB 클리블랜드 팀내 타격부문 1위 추신수 "AG 뛰고 싶다"

지난해 아시아 선수 최초로 메이저리그에서 20(홈런)-20(도루) 클럽에 가입한 추신수(28·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얼마 전 기자에게 '방망이'와 관련된 속사정을 털어놨다. 지난해에는 한국에서 제작한 방망이를 구입해 태극기 스티커를 붙여 사용했는데, 올 시즌부터 메이저리그 규칙에 따라 야구 장비에 부착물을 붙이는 게 금지돼 그 방망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동아DB

추신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 시즌도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해외에서, 그것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스포츠 세계에서 생활하다 보면 저절로 애국심이 샘솟는다는 게 추신수의 얘기였다. 태극기 스티커를 붙인 가장 큰 이유는 경기 감각이 떨어지고 슬럼프에 빠질 때마다 태극기를 보면서 힘을 얻기 위함이었는데, 부착물 금지 조항이 생기면서 더 이상 자신의 방망이에서 태극기를 찾아볼 수 없게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최근 기자는 미국 애리조나주 벅아이에 있는 추신수의 집을 방문했다. 미국 진출 10년 만에 장만한 추신수의 집에는 아내 하원미 씨와 아직 첫돌도 안 지난 건우, 그리고 다섯 살 난 무빈이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인상적인 것은 추신수가 아들 무빈이에게 집에선 반드시 한국말을 하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 무빈이가 가끔 아빠한테 영어로 물어보면 못 들은 체 대답도 하지 않다가 다시 한국말로 질문하면 친절히 대답해준다는 것이다.

추신수는 훈련장에 일찍 출근하는 선수로 유명하다. 스프링캠프 때는 매일 저녁 8시에 취침, 새벽 4시에 일어나 아내와 차를 한 잔 마시고 훈련장으로 출발한다. 그러다 보니 트레이너도 덩달아 새벽 5시에 훈련장으로 출근해야 했다. 하루는 그 트레이너가 추신수한테 "제발 부탁인데, 좀 늦게 나오면 안 되겠냐?"며 통사정을 했다고 한다.

감독·동료가 인정하는 팀의 중심

트레이너로선 추신수가 팀의 중심 타자이다 보니 꼭두새벽 출근을 막을 수도 없고, 자신의 생체시계를 추신수에게 맞추자니 너무 벅차 고민 끝에 어렵게 얘길 꺼냈는데 결국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오전 6시 15분까지 나오기로 합의를 했다. 추신수는 새벽 출근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계획대로 하루 일을 소화해내야 잠들 때 마음이 편해진다. 솔직히 유혹도 많다. 한 시간만 더 자고 나가자, 잠깐만 더 누워 있다가 일어나자, 이렇게 되면 당시엔 잠시 편할지 몰라도 하루 종일 찜찜하다."

지난 5월 13일 미국 스포츠 전문매체 〈ESPN〉 인터넷판은 메이저리그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동료들의 도움이 부족해 외롭게 팀을 이끌고 있는 9명의 선수를 선정했는데

"태극마크를 다는 건 특히 나처럼 해외에서 활동하는 선수에겐 그 의미가 남다르다. 따라서 아시안게임은 내게 매우 소중한 기회가 되겠지만 지금은 시즌 중이니만큼 일단 팀에서 좋은 성적을 올린 후 대표팀에 참가해야 의미가 더 클 것 같다."



AP연합

추신수 선수는 감독과 동료들이 인정하는 팀의 중심으로 완벽하게 자리매김했다.

여기서 추신수가 9위로 이름을 올렸다.

타격 침체에 빠져 있는 클리블랜드에서 안타, 홈런, 타점, 득점 등 타격 주요 부문에서 팀 내 1위(5월 14일 현재 1백22타수 37안타, 타율 0.303, 홈런 4개, 19타점)를 달리고 있는 추신수의 활약을 극찬하면서 클리블랜드의 공격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른 선수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추신수는 동료 선수들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올 시즌 감독님도 바뀌고 부상 선수들이 부진에 빠지면서 공격력이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아직 희망은 있다고 본다. 팀 분위기는 어느 해보다도 좋다. 선수들이 나를 중심으로 뭉치는 것도 사실이고 구단에 건의할 게 있으면 모두 날 찾는다. 선수들의 그런 반응이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론 자만에 빠질까봐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 올 시즌 처음으로 붙박이 우익수 자리를 보장받으며 뛰고 있지만, 그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악착같이 노력하고 있다."

팀의 기대대로 올 시즌 스프링캠프에서부터 추신수는 19차례의 연습경기에 출장하는 동안 타율 0.393, 홈런 3개, 16타점 등 불같은 화력을 선보인 후 시즌에서도 맹활약 중이다. 하지만 시즌 초반엔 저조한 타율로 마음고생을 톡톡히 했다. 그래서 긴장을 절대 늦추지 않는다.

"정말 야구는 잘 모르겠다. 조금 아는 것 같아서 잘난 척 좀 하면 금방 배신하고 돌아서는 게 야구다. 스프링캠프 때는 마음을 비우고 방망이를 휘둘렀다. 그래서 예상외의 좋은 성적을 거둔 것 같다. 그런데 막상 시즌에 들어가니까 욕심이 생기더라. 나쁜 공에 방망이가 나가고 상대 투수와 급하게 승부를 내려고 서두르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마인드컨트롤이 필요했던 시간이었는데 비교적 잘 극복해낸 것 같다."

추신수는 시즌 전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2004년부터 에이전트 관계를 맺어온 앨런 네로와 결별하고 메이저리그 최고의 에이전트로 평가받는 스캇 보라스와 새로운 에이전트 계약을 맺은 것이다. 한국 야구팬들에게 스캇 보라스는 박찬호가 텍사스 레인저스에 입단할 때 초대형 계약을 이끌어낸 능력 있는 에이전트로 알려져 있다. 구단 처지에선 만나고 싶지 않은 최악의 협상 상대지만, 선수들한테는 최고의 파트너다.

"단순히 높은 몸값을 챙기기 위해 스캇 보라스와 손을 잡은 건 아니다. 메이저리그 선수로 성장하면서 자신이 어떤 에이전트와 일을 하느냐에 따라 구단에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유능한 에이전트인 만큼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클리블랜드 측도 내가 스캇 보라스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알고 꽤 긴장한 눈치였다."

"시즌 좋은 성적 올린 후 아시안게임 가고 싶어"

실제로 추신수는 시즌 전 에이전트를 통해 구단과 장기계약 협상을 벌였다. 클리블랜드 측이 제시한 추신수의 몸값은 5년에 2천만 달러 안팎. 그러나 스캇 보라스는 단호히 거절했다. 올 시즌 더 좋은 성적을 올려 지금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계약을 맺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추신수도 이 부분에 대해 공감했고 모든 계약을 에이전트에게 일임했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중국 광저우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린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 추신수는 병역 문제가 해결되면서 몸값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추신수는 일단 시즌 경기에만 충실하겠다는 각오다.

"태극마크를 다는 건 특히 나처럼 해외에서 활동하는 선수한테는 남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2009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때 우리 대표 선수들과 동고동락하며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다. 아시안게임은 내게 매우 소중한 기회가 되겠지만 지금은 시즌 중이니만큼 일단 좋은 성적을 올린 후 대표팀에 참가해야 더 의미가 클 것 같다."

클리블랜드를 이끄는 '추추 트레인' 추신수. 그가 올 시즌 목표로 세운 30-30클럽을 달성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대표팀 유니폼을 입을 수 있을까. 그의 거침없는 행보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다. G

글 · 이영미(일요신문 기자)

국립중앙박물관 아시아 1위 · 세계 10위 年 273만명 방문

조영철 기자



국립중앙박물관은 친숙한 박물관 만들기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2009년 한 해 동안 2백73만여 명의 관람객을 유치했다.

5월 18일 세계 박물관의 날을 앞두고 국립중앙박물관이 큰 성과를 올려 눈길을 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지난 한 해 동안 아시아 지역 박물관 중에서 가장 많은 관람객을 유치한 것. 이 같은 사실은 영국에 본부를 둔 문화예술 및 박물관 분야의 국제적 권위지인 〈아트 뉴스페이퍼(The Art Newspaper)〉가 올해 4월호(4월 1일 발행)에 2009년도 세계 박물관 관람객 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아트 뉴스페이퍼〉의 조사에 따르면 국립중앙박물관은 2009년 한 해 동안 총 2백73만2백4명의 관람객을 유치해 아시아 1위, 세계 10위에 올랐다. 아시아에서는 대만의 국립고궁박물관(2백57만명)이 세계 12위, 일본의 도쿄국립박물관(2백27만명)이 세계 14위로 그 뒤를 이었다.

2009년도 분야별 전시의 하루 평균 관람객 수 조사에서도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해 4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개최한 〈이집트 문명전〉으로 고대 유물 전시 부문에서 세계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9월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한 한국박물관 1백주년 기념전으로 아시아 유물 전시 부문에서는 세계 7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최광식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국립중앙박물관이 한국을 대표하는 박물관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 박물관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줬다"며 "2005년 서울 경복궁에서 용산으로 터를 옮겨 개관한 후 지속적으로 친숙한 박물관 만들기에 힘써온 것이 주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세계 고대문명전 등 마련… 체험의 장 자리 잡아

국립중앙박물관은 2008년 〈페르시아〉전을 시작으로 지난해 〈파라오와 미라〉전과 〈태양의 아들, 잉카〉전, 지난 5월 1일부터 새롭게 선보인 〈그리스의 신과 인간〉전까지 세계 고대 문명전을 연달아 개최해 가족 단위의 관람객에게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방학 기간마다 마련하는 '박물관은 살아 있다' 등의 프로그램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박물관과 친해지고 우리 역사와 유물에 관심을 갖게 하는 체험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이 관람객 8백50만명으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아트 뉴스페이퍼〉 홈페이지(www.theartnewspaper.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G

글 · 김지영 기자

빌린 그림 한 폭에 '폭' 빠져보세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공공기관 등에 작품 대여

행정안전부가 쓰는 서울 광화문의 정부청사 건물 내부는 1백여 점의 그림으로 꾸며져 있다. 행정안전부 직원은 물론 내방객에게까지 즐거움을 안겨주는 이 아름다운 그림들은 국립현대미술관이 운영하는 미술은행에서 대여한 것들이다.

미술은행은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미술품을 매개로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딱딱한 이미지를 편안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바꾸는 일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5년 2월 작가들의 창작활동 진흥정책을 통해 미술 발전을 도모하고 국내 미술시장을 활성화하고자 미술은행을 설립했다. 미술은행은 미술문화의 대중화를 목적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이 우수한 미술품을 구입해 공공기관 등의 환경 꾸미기나 기획전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제도.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이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작품 대여료 100만원 넘을 땐 설치·철거비용도 지원

미술은행의 운영을 맡은 국립현대미술관은 매년 공모제와 현장구입제를 통해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한다. 올해도 5월 4일부터 10일까지 공모를 실시했으며 한국화, 문인화, 서예, 서양화, 판화, 조각, 순수공예 등의 분야에서 1백60여 점을 미술은행 작품으로 사들일 예정이다.

이렇게 구입한 작품은 대여나 전시를 통해 정부 중앙부처, 지자체, 시도립미술관, 지역 문화예술기관 등 공공기관과 일반기업을 열린 문화공간으로 꾸미는 데 활용된다. 국립현대미술관은 한국 미술의 해외 홍보를 위해 재외공관에도 작품 대여를 허락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팀 이세진 아트컨설턴트는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이 미술은행을 이용하면 딱딱하고 권위적인 이미지를 벗고 친근한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용객들도 문화생활을 좀 더 가까이서 즐길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작가들에게는 창작 활동에 매진하고 대중에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작품 대여료는 환경 꾸미기, 20점 이상의 기획전시, 해외 재외공관 대여 등 희망기관과 목적에 따라 다르다. 대여기간 중 보험은 빌려가는 기관이 가입한 후 보험증권 사본 1부를 미술은행으로 송부해야 한다.

작품 운송비와 설치 및 철거 비용도 임차기관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환경 꾸미기를 위해 10점이 넘는 작품을 대여하거나 기획전시용 작품 대여료가 1백만원을 초과할 때는 미술은행이 운송비를 지원하며, 작품 진열과 설치도 임차기관이 원하면 미술은행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도와준다.

한편 미술은행이 올해 구입할 작품은 이번 공모에서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작품구입심사위원회와 가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오는 6월 18일 미술은행 홈페이지에 발표된다. G

글 · 김지영 기자

문의 및 대여 상담 ·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팀
Tel **02-2188-6081~3, 02-2188-6336~40 www.artbank.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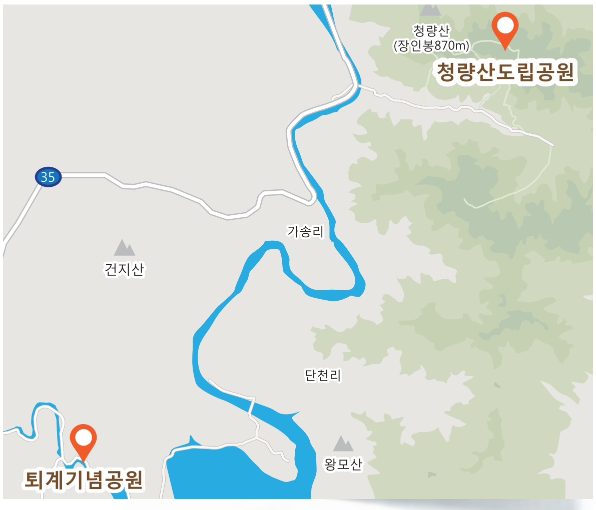
조영철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에서 대여한 1백여 점의 작품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내부에 진열했다.


산과 물이 한 폭의 그림처럼 어우러진 경북 봉화 청량산 자락.

강물 위 맑은 바람 마음 한편 욕심도 가져가렴

퇴계 이황은 경북 안동에 도산서원이 세워지기 전 청량산에 '청량정사'를 짓고 후학들을 가르쳤다. 그런 연유로 도산서원에서 청량산으로 가는 낙동강 길은 '퇴계 오솔길'로 불린다. 시 구절이 절로 떠오르는 아름다운 길이다.



경북 안동 퇴계 오솔길

"퇴계 선생은 맑고 트인 것을 좋아하고, 막히고 가린 것은 싫어하셨다. 그래서 나무 같은 것도 반드시 쳐내서 앞이 가리지 않도록 했다."

퇴계 이황의 제자인 학봉 김성일이 전하는 말이다.

경북 안동시 예안면에서 태어난 이황은 12세에 작은아버지(이우)한테서 초보적인 학습지도만 받다가 14세 무렵부터 혼자서 공부에 전념했다. 그는 특히 중국 송나라 시인 도연명의 시를 사랑하고 그 사람됨을 흠모했다.

정치가라기보다 학자였기에 임금이 부르면 벼슬길에 나갔다 다시 고향으로 내려오기를 몇 차례. 그동안 풍기군수와 성균관 대사성, 홍문관 부제학과 의정부 좌찬성이란 벼슬에 올랐다. 그가 마지막으로 귀향한 것이 68세 때였다.

이황은 경북 안동의 도산면에 도산서원이 세워지기 전 봉화

군 명호면 청량산에 '청량정사'를 짓고 학문을 닦으며 후학들을 가르쳤다. 청량정사는 '오산당(吳山堂)'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런 연유로 도산서원에서 청량산 가는 낙동강 길이 '퇴계 오솔길'로 명명됐는데, 그 이름이 지어진 것은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다.

도산서원에서 이황의 묘소가 있는 안동 하계마을을 지나 고개를 넘으면 원촌마을에 이육사 문학관이 있다. 이황의 14대 후손인 이육사는 본명이 이활인데 대구형무소 수인번호가 264번이었다. 여기에서 고개를 넘으면 단사, 백운지 마을이 보이고 그곳에 낙동강이 흐르며 여기서부터가 바로 퇴계 오솔길이다.

도산서원에서 청량산 가는 길… 소동파 시구 떠올라

강물은 유장하게 흐르고, 강 따라 펼쳐진 길은 아득하다. 안동댐 건설로 옮겨 지은 농암 이현보 종택이 있는 을미재를 지나면 가송리에 이른다. 일명 '가송협'이라고도 부르는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건너편에 그림같이 서 있는 정자가 고산정(孤山亭)이다. 가송리는 낙동강 천삼백 리 물길 중에서도 가장 경관이 빼어난 곳 중 하나. 협곡 사이로 여울져 흐르는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청량산 기슭에 이른다.

퇴계가 나고 자란 예안면 온혜리에서 청량산까지는 40여 리로, 한나절이면 갈 수 있는 명승지다. 퇴계가 사랑한 청량산의 아름다움은 중종 대의 성리학자인 신재 주세붕이 지은 〈청량산록(淸凉山錄)〉 발문에도 들어 있다.

"청량산은 예안현에서 동북쪽으로 수십 리 거리에 있다. 나의 고장은 그 거리의 반쯤 된다. 새벽에 떠나 산에 오를 것 같으면 오시(午時)가 되기 전에 산 중턱에 다다를 수 있다. 비록 지경은 다른 고을이지만, 이 산은 실지로 내 집의 산이다. 어릴 때부터 아버님을 따라 괴나리봇짐을 메고 이 산에 왕래하면서 독서하던 것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풍기군수를 지낸 주세붕은 〈청량산록〉에서 청량산을 두고 다음과 같은 글도 남겼다.

"산의 둘레가 백 리에 불과하지만 산봉우리가 첩첩이 쌓이고 절벽이 층을 이뤄 수목(樹木)과 안개가 서로 어울려 마치 그림 같다. 산봉우리들을 보고 있으면 나약한 자가 힘이 생기고, 폭포수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있으면 욕심 많은 자도 청렴해질 것 같다."

주세붕이 청량사에서 맑은 물을 마시고 만월암에 누워 있으면 비록 하찮은 선비라도 신선이 될 것이라고 한 청량산(8백70미터)은 1982년 경북 도립공원으로 지정됐다.

마이산과 같은 수성암(水成岩)으로 이뤄진 청량산은 경일봉, 문수봉, 연화봉, 축융봉, 반야봉, 탁필봉 등 우뚝우뚝 솟은 암봉이 어우러져 마치 한 송이 연꽃을 연상시킨다. 산세는 그리 크고 높지 않지만 아름답게 솟아 있는 그 기이한 경관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이황은 스스로 호를 '청량산인'이라 짓고 청량산을 이렇게 노래했다.

"청량산 육육봉(六六峰)을 아는 이 나와 백구(白鷗). 백구야 훤사(喧辭 · 말을 함부로 해서 소문을 내다)하랴 못 믿을손 도화(桃花)로다. 도화야 뜨지 마라, 어주자(魚舟子) 알까 하노라."

복사꽃 꽃잎이 강물에 떠내려가면 어부가 무릉도원이 있다는 걸 알까 염려하는 마음이 깃들어 있는 이황의 시다.

낙동강 변에 펼쳐진 퇴계 오솔길을 걷는 즐거움은 그 어떤 즐거움에도 비할 바가 아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강물 위 맑은 바람(淸風), 산간의 밝은 달(明月)"이라던 중국 북송의 시인 소동파의 시 한 귀절이 떠오르지 않을까. G

글과 사진 · 신정일(사단법인 우리땅걷기 이사장)



낙동강 천삼백 리 물길 중 가장 경관이 빼어난 곳 중 하나로 꼽히는 경북 안동의 가송리.



퇴계 이황 선생의 학덕을 기려 세운 도산서원과 청량산을 이어주는 퇴계 오솔길이 강을 따라 나 있다.



유영미 아나운서가 추천하는 〈천국에서 만난 다섯 사람〉

좀 더 나은 삶을 꿈꾸는 것, 웰 다잉〈Well-dying〉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있다. 나이듦과 죽음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늙기 전에, 죽기 전에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는 강한 욕구로 살아간다. 그러나 삶을 후회 없이 보내는 방법은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웰빙'에만 있지 않다. 오히려 노년과 죽음을 내다보며 삶의 깊이를 느끼는 '웰다잉'에서 지혜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올해로 방송생활 24년째인 유영미 SBS 아나운서(48)는 최근 자신이 바라보는 삶에 대한 얘기를 책으로 펴냈다. 1994년부터 방송한 노인 대상 라디오 프로그램 〈유영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을 진행하면서 노년에 대해 깨닫고 느낀 점을 〈두 번째 청춘〉이라는 책에서 진솔하게 털어놓은 것. 그는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가까이 갈수록 더 행복해진다고 말한다. 그는 이 책을 준비하면서 영향을 받은 책 한 권을 추천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로 유명한 칼럼니스트 미치 앨봄의 첫 장편소설인 〈천국에서 만난 다섯 사람〉이다.



유영미 아나운서는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면서 "자신의 삶이 초라하다고 느껴질 때 과거를 되돌아보며 에너지를 얻으라"고 조언했다.

"이 책은 과연 삶과 죽음이 어떤 것인지 진지한 고민을 하게 만들어요. 팔십 평생 놀이공원 정비공으로 살아온 주인공 에디는 어느 날 사고로 죽음을 맞게 돼요. 천국에 간 에디는 그곳에서 다섯 명의 사람을 차례로 만나게 되죠."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에디는 과거의 소중한 인연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삶과 화해하고 인생의 참다운 가치를 깨닫게 된다. 유 아나운서는 에디의 인생을 통해 "삶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것"이라며 "일상 속에서 부딪히는 인연으로 성숙해지고 그 속에서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이 책의 화두로 자연스럽게 '웰다잉' 이야기를 꺼냈다. 늙어가는 자신의 삶이 초라하다고 느낄 때 죽음을 목전에 둔 것처럼 과거를 되돌아본다면 생을 좀 더 가치 있게 살아갈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침이 오면 저녁 오듯이 삶 다음엔 죽음이 따르는 것

"대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려요. 살다 보면 죽는 것이 당연하고 삶과 죽음이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데 말이죠. 삶을 시작할 때 태교(胎教)가 있듯이 삶을 마감할 때도 사교(死教)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웰다잉을 통해 준비된 죽음을 생각하면 이전의 삶을 반성하고 감사하며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거든요."

이런 생각은 그가 16년간 진행해온 라디오 프로그램의 영향이 크다. 그는 최근 아나운서로서는 최초로 제작까지 맡았다. 그만큼 어깨가 무거워졌지만 '제2의 청춘'을 향해 힘껏 나아가는 어르신들을 계속해서 도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방송에서 몇 번 웰다잉과 관련된 얘기를 했더니 '준비된 죽음을 생각하면서 좀 더 나은 노년의 삶을 맞이하겠다'고 결심하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이처럼 두 번째 청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격려와 관심이 필요해요. 아침이 오면 저녁이 오는 것처럼 저 역시도 노년과 죽음을 준비하며 '파워 시니어'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예요." G

글 · 김민지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천국에서 만난 다섯 사람 미치 앨봄 지음 · 공경희 옮김 / 살림 출판사 · 1만원

가져도 가져도 부족한… 욕심

글과 그림 · 최영순



욕심 많은 사람은 금을 얻어도 옥을 얻지 못한 것을 한탄하고
공(公)이 되어도 제후가 되지 못한 것을 불평한다.
– 채근담

꽃처럼 흩날리는 사랑 춤으로 만나는 로맨스 '춘향'

국립무용단 국가브랜드 작품 〈춤, 춘향〉

일시 5월 28일~6월 1일 평일 7시 30분, 주말 오후 4시(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관람료 으뜸석 7만원, 버금석 5만원, 딸림석 3만원, 버금딸림석 2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동반 1인까지 50퍼센트 할인
문의 02-2280-4114 www.ntok.go.kr



⊙ 국립무용단 국가브랜드 공연이자 대표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한 〈춤, 춘향〉이 오는 5월 28일부터 국립극장에서 막을 올린다. 국립극장 '청소년공연예술제'의 대미를 장식할 이 작품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 고전 〈춘향전〉을 바탕으로 신분의 벽을 뛰어넘은 춘향과 몽룡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그리고 있다.

〈춤, 춘향〉은 2006년 초기 기획 단계부터 해외 무대 진출을 염두에 두고 제작됐다. 우리 민족의 정서를 잘 녹여낸 춘향의 사랑 이야기를 소재로 삼은 이유도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국립무용단의 이 기획 의도는 제대로 맞아떨어졌다. 2007년 초연 후 지난해 전석 매진 열풍에 이어 홍콩과 필리핀 정부 초청공연, 올해 2월 미국 뉴욕 링컨센터 공연을 잇따라 성공시키며 세계인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다.

이번 무대에서는 그간의 성공을 발판으로 한층 더 새로워진 〈춤, 춘향〉을 만날 수 있다. 춘향과 몽룡의 만남과 이별, 그리움으로 이어지는 미묘한 심리변화가 국립무용단 단원 개개인의 개성과 어우러져 생생한 감동을 자아낼 뿐 아니라 죽비 춤 등 다양한 볼거리가 극적인 재미를 더한다.

지난해 당당히 춘향 역을 꿰찬 국립무용단 단원 이의영은 가녀린 몸에서 뿜어내는 애절한 연기로 실력을 인정받아 이번에도 '원톱' 춘향 자리를 지켰다. 상대인 몽룡 역에는 무대를 압도하는 파워풀한 기량과 섬세한 표현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예 무용수 이정윤이 낙점됐다.

배정혜 예술감독은 "이의영과 이정윤이 그려내는 세기의 로맨스와 국립무용단의 새 얼굴들이 펼칠 에너지 넘치는 활약, 주요 장면에 등장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무용 소품들 모두 눈여겨볼 만하다"며 "눈부신 한국 춤의 진면목을 보여주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G

글 · 김지영 기자

춤극 〈명성황후〉

일시 5월 21~22일 오후 7시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관람료 VIP석 5만원, R석 3만원, S석 2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동반 1인까지
50퍼센트 할인
문의 02-1544-5955 www.theateryong.or.kr



국립중앙박물관의 용산 개관 5주년을 기념하는 초청공연. 조선 26대왕 고종의 비(妃)이자 개화의 물결 속에서 국모로서 기구한 삶을 살았던 명성황후의 생애를 밀도 있게 다뤘다. 이번 공연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안무가인 국수호(고종)와 함께 정혜진(민비), 정재만(대원군) 등 국내 최고의 춤꾼들이 출연해 살아 있는 예술혼과 춤극의 독특한 매력을 뿜어낸다.



발레 〈심청〉

일시 5월 24~30일 평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3시, 7시 30분, 일요일 오후 3시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관람료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1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50퍼센트 할인
(1~3급 동반 1인까지)
문의 070-7124-1729 www.sac.or.kr

1984년 유니버설발레단 창단과 함께 탄생한 이후 지금까지 세계 10개국 40개 도시에서 1백50여 회의 공연을 펼치며 뜨거운 찬사를 받은 작품.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6년 만에 다시 막을 올리는 이번 무대의 하이라이트는 1막 '인당수'와 2막 '용궁' 장면에 디지털 영상을 오버랩해 생동감이 넘치는 환상적인 수중 장면이다. 매회 공연 전 해설을 진행하던 문훈숙 단장이 이번에는 해설 대신 프롤로그에 카메오로 출연하는 점도 이색적이다.

Korea 2010-2012 VISIT KOREA YEAR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홍보대사 김연아

따뜻한 미소로 말해주세요

"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2010~2012년은 **한국방문의 해** 입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는 당신이
대한민국 **미소국가대표** 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VKC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
VISIT KOREA COMMITTE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문화체육관광부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2010 UNESCO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THE 2nd WORLD CONFERENCE ON ARTS EDUCATION

2010. 5. 25 - 28 서울 코엑스

예술은 사회성을,
교육은 창의성을

주 최	문화체육관광부, 유네스코
주 관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주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 의	홈페이지 www.artsedu2010.kr
	이메일 2010artsedu@korea.kr

